朝鮮日報

購讀料 壹枚金四錢○一個月八十錢○郵稅一個月拾五錢○三個月先金貳圓九十五錢○六個月先金五圓四拾五錢○壹個年先金十圓八十錢

廣告料 五號活字十五字詰一行金一圓廿錢 特別欄內金二圓○四號活字十字詰一行金一圓七十錢○二號活字七字詰金二圓四十錢○特別倍額

編輯兼發行人 金[illegible]熙 印刷人 金邦柱

發行所 京城府水標町四三番地 朝鮮日報社 長電話本局二一五六番 振替口座京城四〇九九番

朝鮮民立大學發起에就하야 (上)

昨日本紙에報道함과如히去二十三日에各界를通하야有志한四十餘人의發起로우리朝鮮에民立大學을設立하라고期成準備會를開催하고今後의進行할方針을協議하얏다하니 吾人이此報를接하고初에는驚喜若狂하야良久토록定情할바를不知하얏스며次에는旣往을回想하며現在를推覽하고無量한感慨를또한難禁하얏도다 權花古域에歐風이吹入함을因하야設校開講한近代의敎育史를溯考하건대育英公院을最先頭로하야今日까지오도록그年代를論하면三十餘年의長歲月을經過하얏스니爾來로우리의國家와人民의實力을扶殖할모든機關과文化를誘致할모든制度가하나도順調로發展치못하고모다可抗치못할魔障과可排치못할防碍로繼續하야沉滯不振하는狀態에在하엿슴은隱諱치못할事實이나檀祖의血統을承受하야亞細亞東部에가장文明하고가장武强하든神聖靈秀한民族으로新風潮를吸收한지三十餘年에一個의大學이無하여서濟々한後生으로하여금笈을負하고四方으로散之하게되얏스니此에對하야그所以然을言함에그如何하여서如此하다는理由가無함이안일것은分明하나그理由에對하야畋々히說明하는이보다차라리無誠意함을自責하고後效로前愆을補함이至極히合當하다할지로다 十餘年以前에우리가自力으로自家事를解決할時代에完全한學制를製定遂行하야官公私立의何者를勿問하고一定한列國共通의規例를從하지못하야所謂學校라함이國計民生에裨益이有할技術과文化思潮에指針이될學問를目的함이아니라幾個官立學校에서外國의語學이나敎習하야舌人의資格을養成할뿐이엇스니敎育問題에對한官邊處置는何를可하다何를否하다하야國辱과無異한瀆話를다시掘起할必要도無한바인즉先天的一片夢境으로看作하고十餘年以後로四五年以前까지는言論도敎育도實業도思想도무엇도不許하고모다絶對로沉熄하야生機가거의絶滅하엿섯스니그도또한說道할意思가無하다하려니와四五年以來로現今까지오도록最近幾年으로言하면多少의障碍를當하면서라도敎育事業을振興코저할진댄此도不可能이라하면勿論不然하다할터인데向學熱과敎育觀念이進步되얏다함은다만學生의道路에彷徨하는狀況으로證明할뿐이요旣無하든校塾이連續的으로設立되야挾書請敎하는新進少年을全部招集하고盡數網羅하야그의前途를開示하며引導한다함은充分한事實을不見하겟스니言코저할진댄齒가酸하고思코저할진댄膽이墳함과如하도다

現今우리가目下環境에處하야그虛現狀을打破하야根本問題를解決한後가안이면餘事는學論치말코저하는言動이업지안이하나敎育事業갓치重大한題目에對하야는全體의心力으로그解決을圖謀하여야비로소效果를得할今日에오히려汗漫히思하야幾個有志에게放任하고傍觀하는態度를取하는傾向도不無히니그退縮하는者의不廣濟々할것은多言도設할價値가無하거니와現狀을突破하고猛進하라는人의見解에對하야는우리가勿論極端으로贊成하는바이며到底히崇拜하는바이나그所要하는目的을안일即地에達成하지못할터이면年紀가老大하고頭腦가已判한壯年者의다各々그所好를從하야活動할것은勿論이나그의後陣에立한第二國民即學齡에相當한子弟는맛당히敎育하여야後繼者의勢力이弱하여지지안이할터임이明確한事實이니그러면우리가如何한困難이有하여도如何한事情이有하여도子弟를敎育함에對하여서는徹底한精誠을盡하야聰明俊秀한吾子吾孫으로하여금豚犬으로化하지안케함이父兄의最大責任이라할지니過去한狀態를우리가또數行하야現在를談하고根本이요命脈인이問題를그대로放置하면未來한慘狀을誰가引受하리요如此히思惟할진댄敎育二字가尋常歇后한事件이안임은勿論이요未來의福利를種植함이此一欵를捨하고는更無할바이라同胞兄弟여此點을深思하라

烏克蘭의今昔 (五)

此를推想컨댄露西亞의當時情形은極凋極疲함을遭際하야그所謂政治上의革新이라하는것은一朝一夕에實現치못할것이이를兼하여그人民은戰爭에支離하고苦厭하야彼此에相救互援을못하고晝夜의一念은오직個人마다室家도잇고鄕土도잇서幽戀을常繫하야耿々하니無政府主義와볼세비크主義와는正히反對地位에立한지라그리하여그分裂하는區域은此種愛鄕하는自決心을恃하야劃定할것이라하겟도다

此時烏克蘭은볼세비크黨으로더부러反抗함을當하야法國政府의援助를會求하니法國政府는允意가頗有하며또는烏克蘭으로더부러條約을成立하야烏克蘭의鐵道와財政을管理함으로써援兵을派送하는交換條件을삼고저하더니 一九一九年四月에忽然히該條約의批准을拒絶하는同時에『오데사』(奧台薩)와그附近諸地에駐屯한軍隊를撤回하니이는法國이波蘭을專助하야볼세비크黨과『東가리시아』(漢譯東利細亞)에잇는烏克蘭軍을對抗코저함이니 東加利細亞의居民百分의七十은烏克蘭人에屬한것이라 英國은『떼니킨』(漢譯台尼金)을援助하고米國은『콜차크』(漢譯柯爾恰克)을援助하나台尼金의軍隊는또한烏克蘭軍과作戰을하는거니되엿다 此로因하야加利細亞와『셔나이페』(漢譯聶伯)河區域에잇는烏克蘭의軍隊는雙方으로敵을受하며一方으로는『볼세비크』軍의壓迫을受하고一方으로는波蘭軍과台尼金軍의攻擊을被하니烏克蘭은外助가旣無하고軍機가又乏하야거의空拳으로奮戰함과異함이업는境遇에對하야畢竟은台尼金에게敗함을遭하니潰散한士卒이波蘭으로逃往함이多한지라 一九二〇年四月二十一日에烏克蘭이波蘭으로더부러『왈소』(漢譯華沙)에서條約을締結하야波蘭의操縱을受하게된[illegible] 그런대烏克蘭의近狀은究竟[illegible]것은가表面上으로로보면[illegible]國家가되여『소비에트』的露[illegible]聯邦의關係가잇다하겟지만은우리는國際上으로말하면目下莫斯科의『소비에트』政府代理人이나或은附屬國이라할것이다 烏克蘭의首都는『차고푸』(漢譯卡高夫)、이니實은莫斯科의利用器具가되엿나니『볼세비크』人이將都를『게푸』(漢譯凱夫)에建設치못하게함은同地가軍事上에優勝을占한所以어라 凱夫一帶地方에는農民의暴動이多하나卡高夫는俄界에近함으로反對黨의圍攻을少受하엿더라

烏克蘭이極力으로莫斯科의羈絆을脫離하기를謀하나그러나아즉은討論한것이空談에並歸하엿다 그런데事實上으로論하면烏克蘭에잇는『볼세비크』政府의勢力은다만大城市와軍力으로保護하는鐵道上에及할뿐이오 烏克蘭境內의小鎭과村落으로農民方面에全屬한곳은竝히『볼세비크』政府를認定치안이할뿐안이라深惡切憎하나니 그의重大한原因은經濟的關係로生하얏도다 先頃의災荒을當하엿슬時에『볼세비크』人이北俄羅斯와大俄羅斯로부터와서烏克蘭域內膏腴한地方에聚集하야農民의食糧과牲畜을擄掠하야載去하엿슴으로烏克蘭의農民은『볼세비크』의人만痛恨할뿐안이라大俄羅斯의全部까지詬罵하더니此에至하야는種々한復仇的暴動이起하야『소비에트』의長官과그人民의被害한者가頗多하엿다 이러한지日이久한즉烏克蘭人도防禦하는方法을習知하야五穀과食品을深藏하야他人으로하여금見치못하게하니라

烏克蘭은本是農業國이나英國農夫의公有制度를行함과갓지안이하야私有制度가仍存함으로社會黨이大地主의産業을小農民에게分配함을主張한時에烏克蘭人은同情을極表하엿더니大地主制가임의廢止된즉社會黨의傾向할必要가更無하고다만希望하는것은私有制度에根據하야長久히그田土를保有코저함이라

歐米各國의社會運動 (六七)

佛蘭西

此綱領을採用한後二年『산데지에누』에서大會가開하엿는데此大會에서는『게드』와『블스』間에爭論이生하야兩派가遂히分裂하얏나니『블스』는巴里에서醫業者區會議員이되야其前부터『게드』와그首領의地位를爭하다가此時前揭綱領에一修正을加함事를勸議하야 二十七에對한三十六의投票를得하고 此에서少數者는脫退하야 別로히一團體를組織하얏다 兩派間의調和는第三次이나試하얏스나그러하나 맛침내更히合同하지못하얏나니 大槪兩者의間에 個人的嫉妬가잇슬뿐이안이라 兩者의傾向이大端이相違하얏섯다『게드』派는『갈·맑스』의經濟上의敎理와그政策과를 承繼하야世界的革命主義와 社會的集中國家의政策와 剩餘價格說과 勞働者의全生産에對한 全權說과를採用하얏는데『블스』는此를反對하야 集中說을非難하고分權說을採用하며 產業을市有로하고자하고 또彼等은自治區로써自己의巡査 自己의兵士 自己의行政官 自己의裁判官에依하야 支配하고자하고 또綜合的財産의統治는 地方團體에依하야 善히實行하야成就하고자思하얏다

『블스』派는 瓦斯 點燈 給水 乘合馬車 鐵道馬車를 모다市營으로하고자하얏다 一八八七年에至하야 彼等이更히項目을 그綱領에加하얏나니 即市로써公資或은公債로부터生產會社를設立하고此를會社內勞働者에委任할設計를經營하얏다 이것은『라스사레』의舊政策이 再現되얏다고言할지나 그稍異한點은 다만『라스사레』는國債로부터生產會社를設立하고자計劃하얏고『블스』派는 此를反하야 市債에依하야 設立하고자하얏다 此提唱에對하야 佛人은조금도驚恐함이 업섯나니 大槪彼等이共働生産에서旣히多大한成功을엇은經驗이 有함이라 更히彼等은他一要求를 提出하야 曰 모든公共의契約은 勞働者『산듸가』가 承認한바 勞働時間및勞銀을 條件으로하지안이하면 不可하다하얏나니 此勞働者『산듸가』는即勞働組合이라 公共의權力者에對한彼等의要求한事는 멀니社會主義者를超越하고 以上의成功을得하얏다

『블스』派의社會主義는 實로都市社會主義니 都市産業과 生産會社에對한市債 等事는『게드』派眼中에는單純히補修事業으로映하고 共和社會主義同盟의可能政策에 何等의優勝한곳이無할것으로 生覺하얏나니 故로『게드』派는『블스』派를 可能政策의派라고名하얏다『게드』派와『블스』派가一八八九年에至하기서지는 何等의代議士를두지못하얏고 다만『블스』派는巴里市會에서 九人의代表者가有하얏슬뿐이다『게드』派中에는 學識이有한者가多한데 就中『게드』自身과『라파르그』(『맑스』의女婿)는그社會의地位上에그의力量이一頭地를拔出한人物이나 그러하나其派에從屬하는者는極히少數요또減少하얏나니 彼等이獨逸社會主義에對하야 同情이有하고 獨逸社會黨과同盟한事가 即그의原因이라

朝鮮古今人物 (三〇)

趙云仡 (二)

辛禑三年에起하야左諫議大夫가되얏더니同列로더부러上疏曰自古로人君이學을由하지안이하고能히天下國家를治하는者는無하니爲學의道는無他라書를讀하고理를窮하며意를誠하고心을正할뿐이니是以로先考聖王이講官侍學을置하야令道學을講明하게하심은其慮가遠矣어날近來에書筵講學이或은作하고或은輟하니臣等은竊히上을爲하야惜하나이다願하건대先考의遺意를奉하사書筵을다시設하시고萬機의暇에經史를講習하시며善道를進하사德性을涵養하소서하다再轉하야判典校寺事가되얏더니六年에乞退하야光州古垣江村에居할새蓑衣와草履로役夫로더부러院을築하는役事를갓치하니過者가達官인줄을知하지못하더라十四年에다시起하야衛直提學이되얏다가西海道觀察使가되야將次行할새上書曰臣은聞하니芳餌의下에는반다시巨魚가有하고重賞의下에는반다시良將이잇다하며又曰虛惠를行하고實福을受하나니라하얏스니斯言이至當하도다大凡爲國者는맛당히家給人足하야內外가患이無한時에도오히려또한危殆함을思하거날하물며我本朝가水로는倭島에近하고陸으로는胡地를連하얏스니可히慮하지안이하지못할지니다國界가西海로부터楊廣에至하기까지全羅로부터慶尙道의至하기까지海道二千餘里에水中可居할洲가有하니曰大靑、小靑、喬桐、江華、珍島、絶影、南海、巨濟等大島가二十餘오小島는可히勝數하지못하는데모다沃壤과魚鹽의利가有하되今에廢하고用하지아니하니可嘆할지니다맛당히五軍將帥와八道軍官에게各々虎符金牌를賜하고그千戶와百戶에게는牌面을授하고仍히大小海島로그의食邑을삼아子孫에게傳하게하면다만將帥一身의富만안이라子孫世에衣食이有餘할지라人々이誰가各々自戰하지안니하리요人々이各々自戰한즉戰艦이自備하고兵糧이自實하야遊兵이될지라因하야不意에出擊하면賊이敢히窺覦하지못할것이오民이富裕를得할지라烟火가相望하고鷄犬이相聞하며民은魚鹽의利를獲하고國은漕轉의慮가無하야祖宗土地가今日에復全할리니願하건대大臣으로더부러諮議하야施行할지니다하니禑가其書를都堂에下하다云仡이州郡을視察할새綱을頓하며紀를振하고强을抑하며弱을扶하야조금이라도法을犯하는者有하면毫髮이라도容貸하지아니하니都內가大治하더라恭讓이卽位에鷄林府尹이되얏다가高麗가亡한後에廣州別墅에歸隱하다가爲人이立志가奇古하고時를隨하야俯仰하지안니하더니將次終할새墓誌를自述하야曰『趙云仡은豐壤人이니高麗太祖의功臣平章事趙孟의三十代孫이요恭愍代에興安君李仁復門下에登科하야中外에歷仕하야五州의印을佩하고四道의風을觀하얏나니비록크게聲績은無하나또한臟陋는無하더라年이七十三에廣州古垣城에서病殁하니無後라日月로써珠璣를삼고淸風明月로써奠을삼아古楊州峨嵯山南摩訶耶에葬하다孔聖杏壇上과釋迦雙樹下에古今聖賢이잇지獨存한者가有하리요喘々人生에事가畢하얏다』하얏더라

朝鮮佛敎革新論 (八)

梵魚 李英宰

그러나寺刹令을基盤으로한本末制度는零落하나마一塊가되얏던佛敎를도리여三十個로分割하얏스며凝聚하나마協議的이엿던것을本末干係로因하야도리여紛糾케하얏스며微々하나마共和的이엿던敎政을도리여本山住持의專制로맨들어버렷다

그럼으로비록本末制度를定한動機는故意의惡에잇다고는하지못할지라도本末制度를實施한結果即敎團의不統一敎徒의不和合本山住持의專制橫暴等에徵하야서보면本末制度는善이라고할수는업다 假使百步를讓하야本末制度를合理的이라고하더러도、所謂三十個本寺의指定이果然무엇을根據함인가疑問이다 理에依한것인가 敎派에依한것인가 地域에依한것인가 寺格에依한것인가 寺財에依함도안이요 僧數에依함도안이요 實로當時爲政者와一部僧侶의獨斷的임의不適한것이다 그沒根據하게指定된本寺로幾十의末寺를支配하라함도無理의甚한것이요無條理하게成立된本末制度로全敎界를律하려함도專制의甚한것이안인가 又況本末制度로因하야三十本山住持의專制와惡弊가百出하는今日에敎界에서나行政當局에서나이것을默視하고잇는態度야말로孰是孰非라하기어렵다 假使本末制度를制定할當時에잇서서는 後日에어와갓흔弊害가잇슬것을豫想치못하얏다할지라도 本末制度를實施한지十餘年間에本山住持의弊害가一二가안이여서擧世가指摘하는今日에當局에서는무슨理由로本末制度를持支하야本山住持의弊害를蔓延케하는가疑問이다

本末制度로부터胚胎된本山住持의惡弊에對하야는 志僧義徒의間々指摘한바일뿐안이라現今에는公開的秘密이되야擧世가共知하는바라 吾人이새삼스럽게本山住持의罪惡을論할必要가업다 그러나已往佛敎의病弊를論斷하야오는筆端이라遺漏할수업슴으로 下에本山住持의大失責을無順序하게記한다。

一、佛敎의全責任者로佛旨의闡揚에努力치안이하고 도리여佛을賣하고 法을毁하며 僧伽를擾亂케하얏스니 이것이失責의一이요

二、人材를養成하야民衆을敎化함이敎團主權者의本務어늘 十餘年을經過한今日에別로布敎敎化事業의實績이업시니 이것이失責의二요

三、敎界有爲靑年을排日不逞之徒라하야 或은法에誣하야獄에投하고 或은鉢을收하야俗에逐하야 敎界의前途를暗澹케하얏스니 이것이失責의三이요

四、法類를集合하야黨派를作하야他僧徒를抑壓 又는驅逐하고獨住持萬歲의野心을行擅하얏스니 이것이失責의四요

五、權門에賄賂하고官邊에阿諛하야個人勢力의持保와自己의利權獲得에急々하고 敎務를省察치안이하얏스니 이것이失責의五이요

六、敎界諸般事를處理함에協議的으로하지안이하고 每事를住持獨斷的으로하야『朝鮮佛敎의興衰가都是三十本山住持의掌中에잇스니 他人은大小事의善不善間에容喙치말나』는橫暴主義로一般僧侶의人格과權利를無視하얏스니 이것이失責의六이요

歷史上으로본世界 (八)

惺吾 李利奎

羅馬帝國은確實히羅馬勢力의膨脹이엿섯다 그러나膨脹으로말미암아그힘은弱하야젓다 그리고羅馬人은國民的으로부터世界的으로다감에그結果는帝國의動搖不安이되며分裂이되며更히滅亡이되얏것이다 그러나帝國은泯滅하엿지마는한번그領域內에培養된統一的文化의力은永久히後世의歷史를動하는一個의힘이되얏나니 여긔에또希臘의境遇와갓치國土는亡하엿스나反히文化는世界的勢力을占함에至한形勢가是認되는것이다

(四)

羅馬帝國에關聯하야말할것은基督敎이다 基督敎는確實히世界的宗敎의하나이다 그러나그것은古代의亞細亞一角 猶太라하는一國民의사이로부터起하엿다 基督敎의創始는羅馬帝國의隆盛期인데 猶太는勿論羅馬로말미암아滅亡되야領土가되엿섯다 即猶太人은當時亡國民이엿든것이다 그以前猶太가獨立國으로서興旺하는時代에는 彼等의間에는猶太敎가世에行하엿다 그것은古代民族의諸宗敎와갓치非常히國民的色彩를帶한宗敎인데純猶太的인이엇다 그國民的猶太敎로부터基督敎가出生한것은世界史上에深히興味잇는問題이다 元來그것은基督의人格의힘을기다리어만된것은贊言을不要한다 어다시文化上으로하는『헤레니슴』의世界的弘布 次에羅馬帝國의統治統一的生命이當時의世界에漲溢하엿든 基督敎는그것을基礎로하야스스로世界的公敎가될機會를捉함이잇섯다 그러나그것도不拘하고猶太가當時强固한獨立國家가되어잇섯더면 猶太人의一神敎가容易히世界的一神敎인基督敎에進하게되엿슬는가 그것은疑問이라할수업다 想컨대基督敎가世界的宗敎가됨을得한것은猶太人이亡國의民이엿든緣故인대만일猶太가强固한國家로서存在하엿드면 依然히國民的宗敎의範圍를脫치못하엿슬것이다 即猶太人은國家를失하며서容易히國境의觀念에서超越하야 基督敎를前提로하고精神的으로羅馬의各領土에侵入하게된境遇라고하겟다 原始基督敎가現世에失望하야希望을將來에囑하는來世敎이엿든것은亡國의否運이生한宗敎인것을明示하는것이다 먼저征服을當하고그리고後에征服을한다하는原則은基督敎의境遇에가장適用된다 所謂强者에對한弱者의復讐는이와갓치되엿다 元來如此한復讐는基督敎本來의精神과는全然沒交涉이나史的發展의順序는自己스사로우와갓흔結果에서니르럿다 如斯히하야基督敎는羅馬帝國內에弘通하엿다 그리고羅馬가滅한以後는더욱갓세게 더욱넓게世界의人心을支配하야 能히二千年의流傳을오히려得하야今日에及하엿다 此와如히偉大한精神的世界支配의成立은基督敎가그發足點에서일즉이國家國民의差別을超越하야 世界的全人類的觀念을高潮로함에起因한것이다

헬만과도로데아 (五八)

梁夏葉 譯

『아ー당신께서는참으로훌륭한女子를다려가시게되얏슴니다 이도로데아로말하면 언제이던지부지런하고 또한일을무엇이던지 着實히하기로有名한女子이지요ー! 그러서인제는지말하기를 宅과가트신데가잇스면가서 일을하겟다고하는데이올시다 사람이란것은 그者의人品을보아셔아는것이아니요 物品賣買時에보면 仔細이알수잇는것이닛가 이도로데아가羊이라던가 牛馬를팔기로하며 交換할셔에보닛가 참으로내가처음生覺하든바는 大端이矛盾이셩기여요 그런그녀로부터 이도로데아를알게된것이며 親하게되얏슴니다 이러한女子가 宅에下人으로갈것가트며 勿論物件에對한紛失도업슬터이요 또한일젓는것이업슬것임니다그려 나 종되지나못한것들이 남에집에 下人으로가기만하며 그저主人의눈을속이며서 여러가지를盜賊하는수가잇지안슴닛가ー!만일에 이와가튼것들을몰으고서 下人으로採用한달것가트면 空然이以後에後悔하라고나게되는것이지요 勿論사람이란것은 그의裏面까지 올나보고 오직表面만보고서 사괴는것이것가요ーー그러나 당신께서는 이런것저런것을다 아마그러한런지는업슬것갓슴니다 그런생만안이라 이ー도로데아로 말하여도 더략그러한것은임에 覺悟한女子이고 또한그러케까지 하지안을줄도自信하닛가 다른女子들과는엇더한便으로보든지間에 나흘것이올시다』

賜李王殿下御寵用

我朝鮮고무靴의元祖 大陸고무

京城(龍山)元町一丁目 大陸護謨工業株式會社 社長 李夏榮

京城府鐘路一丁目四七番地 大陸護謨工業株式會社 總發賣所

皇祖敬信崇神敎會振興

本敎會가十三道各郡에支敎會를設置하며發展하는바今番에特別振興하야一般敎徒에惡習은廢止하고良風美俗으로指導敎良하야新時代의無碍키爲하야事務을進行하오니京鄕間敎徒等은勿失此時를爲要

京城府堅志洞九十三番地 皇祖敬信 崇神敎會

▲비게자와 멀고머은 일본복강시에서 양손을합하여 본국형제자미씨의 힝복를츅하옵나니다

◉본인이 본국을써나 당디의개업한지 사개년에 사회쳠군제씨의 애휼지은으로 영업이날노 광장하옵고 그은혜를만분에 일리라도 답하고 를위하여 금번은각항물품을구미각국으로 수립한후 특별렴가로 홍신판미하옵난바 물품은견고하고 가격은물논본국보다「반절이오니」남녀제씨난 시세를일치마시고 일차시험하여보시기을절망々々

◉물논엇더한 쥬문이던지 응접하오니 쥬문서에「先金」삼분지일을보내쥬시압

영업목록

한약 약재 각종 / 동양 약 부 / 유명 매약 각종 / 신 약 각종 / 당사 회약 三十종 / 홍삼 一斤 十五圓 / 라국포도주 / 신랍병은기 / 치료기각종

잡화 각종 / 능양 잡화 부 / 농양 복 각종 / 신식 양품 부 / 파 물 라 / 신식남녀 각종 / 고자양산 각종 / 자 전 거 라 종 / 동양쥐물각종

◎의사도잇사오니 병명을자세이 적거보니시면 제약하여보 내옵나니다

◎주문하신물품이 부족한경우에난 즉시 이런지 돈을도로보니든지하오니 안심하시고 주문하시요

티리졉及특약점及大募集 하오니지원자난 이리셔명 남녀우원을 삼전우표을보니시압

日本福岡市本町二五 東洋物産 合資會社 金澤製藥社

齒科診療

東京齒科醫學士 李熙昌齒科醫院

京城黃金町一町目二九番地 (京城日報社越便)武橋

大正十一年十月十七日

各地方特約大店募集

보라! 腫瘡患者에大活路! 醫藥界의新光明!

世傳秘方 腫瘡良藥 『금비라』

近日江湖의大歡迎을받는神術的醫書의『경』의著者大禪師日棞奎先生의先祖以來世傳的秘方靈藥인白膏藥이今日出世함은實로腫瘡患者에게一大活路가되는同時에우리醫藥界에一新曙光이되도다患者로셔귀아니愛用하며藥業者로셔귀아니宣傳하랴

但特約店及同業者에게는特別割引이有하오니有意하신이는本舖로問議하시옵

定價金 大包二十錢 中包十錢 小包五錢

京城府鳳翼洞二一番地 本舖 三藏譯會內

地方代金引換 金銀細工製造物品

金 銀

京城南大門通二丁目一五〇番地 振替京城一八三二番·電話一八〇六

物品精選迅速應酬 本商會은生命의

信行商會

鋼鐵製ベント式 火災保險付 金庫販

全南光州驛前 宮瀨商會金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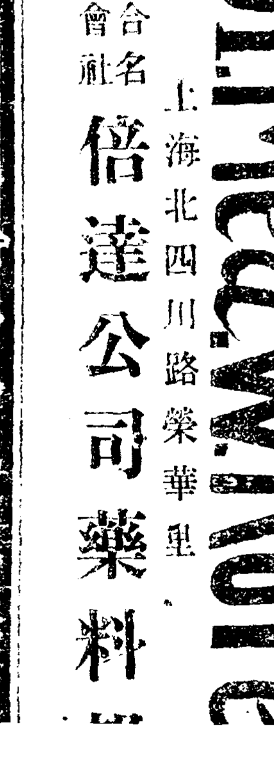
獨逸名醫靈藥在此하니 病家兄弟安心問議하라

◇大丈夫處世하야良相이되여上으로[illegible]扶치못하면良醫가되여下으로蒼生의疾苦를救함이人生의一大事라吾人은비록良相良醫는아니나또한賣藥謀利의賤業이아니라오직愛族主義下에서半島의病魔를驅逐하고同胞生命을拯救코저獨逸名醫를延聘하고獨逸靈藥을輸入하야我同胞의게數年間試驗한結果로百藥이無効하든難病者로서一朝全快함을得한者實不可勝數라病愈한兄弟의謝狀과求藥하는同胞의注文書가輻湊增加하니在上海民族의先進先輩되시는諸位先生도吾人의此義擧를大贊하시는바家貧病重한兄弟의게는原價實費로親切送藥하는吾人의一片丹心이何에在한을諒하소서

◇勿論何病하고病患으로苦痛하는兄弟는病症如何를記錄하야書信으로一次問議하시면本社藥料部主任獨逸醫學博士『코레크』先生이鄭重히處方하야獨逸靈藥을親呈함니다近日獨逸貨幣大暴落으로因하야獨逸藥價가低廉하나니病家兄弟는病錄一張과送藥料로六十錢郵票를封하야보내시면代金引換小包로至急送藥하노이다藥價를先送하심이關稅關係上注文主의大利益되오니口座下關六〇八九番을利用送金하시옵)

藥價標準(輕病用每劑自二圓至三四圓가량 重病用每劑自四圓至六七圓가량)

獨逸醫學博士 써불유 코레크



上海北四川路榮華里 合名會社 倍達公司藥料部

中國政局

汪內閣成立

(北京二十九日發電) 中國內閣은二十九日에決定하고發表하얏는대 其閣員은如左하더라

國務總理 汪大燮
外交總長 王正廷
內務總長 高凌蔚
司法總長 許世英
陸軍總長 張紹曾
海軍總長 李鼎新
教育總長 李根源
交通總長 高恩洪
農商務總長 彭允彝
財政總長 (國務總理兼任)
幣制委員長 顧維鈞

此內閣은保定派洛陽派政學派研究派의聯合內閣으로組織되얏더라

山東交涉案調印 去月三十日午後四時

(東京電) 日本外務省에二十九日午後五時到着한北京公使의公電에依하면山東交涉은大體終了하고三十日午後四時에調印하기로決定하얏다더라

別報

(北京二十九日發電) 山東細目協定第一部委員會第五十四會議의結果가如左하더라
一、海底電線問題는全部決定함
二、公有財產及鹽田의保障總額은日本金千六百萬圓으로決定하고國庫證券은年六分으로解決함
第一委員會問題는全部解決하고三十日午後四時에調印할豫定이더라

關稅改正案實施延期

(北京二十八日發電) 中國關稅改正案의實施는無期延期가되얏다더라

京綏鐵道借款內容

(北京二十八日發電) 京綏鐵道借款契約의大要는如左하더라
一、金額二百二十萬磅相約二千萬元
二、利殖年八分
三、償年額이第一期는八割五分第二期는八割九分平
四、債權者白耳義의『진도、보스돈데리기ー』營業會社即『부랏세르』銀行의代表者
五、擔保 第一擔保는京綏鐵道包頭鎭에서甘肅省寧夏에至하는延長線의財產及其收入第二擔保는第一擔保不確定한時該鐵道의北京에서包頭鎭까지財產及收入外債券은全部白耳義에서發行하고前渡金二十二萬磅은既히發行되야約百七十萬元을交附하고其他는吳佩孚에게歸하얏는데本月分도亦『부랏세르』에서八百萬元實額八割로振出되고右資金은未久到着할지며◆外一千萬元의債券도現在印刷中인즉速히方法을講究치아니하면此一千萬元도亦軍閥의手로歸하리라더라

京綏鐵道日米管理增置提議

(北京二十九日發電) 京綏鐵道의舊借款整理가未了하고債權者에米國機關車會社와日本三井會社는各管理人을該鐵道에置할旨를中國當局에提議하얏더라

內外鐵道引續委員決定

(北京二十八日發電) 山東鐵道代表는中國은三千二百五十萬圓、日本은四千五百萬圓案을主張하고內外鐵道引繼委員十名式을定하얏다더라

段祺瑞密使奉天派送說 張作霖氏와密議

(奉天二十八日發電) 曩者北京兵營을脫出한安福派의下士朱深은段祺瑞氏의密使로數日前秘密히當地에來하야張作霖氏와何事인지密議하얏다는說이有하더라

張作霖、露干涉拒絕 東中鐵道에對하야

(奉天二十九日發電) 最近勞農露國政府는東中鐵道에對하야種々의計畫이有한故로張作霖氏는完全히回收하고列國도異議가無한故로露國의一切干涉을拒絕하기로決하고同鐵道의管理及今後의方策에對하야考究中이라더라

盧、張兩人排吳宣言

(北京二十九日發電) 浙江의盧永祥氏는吳佩孚氏排斥을宣言하얏는데張作霖氏는又盧氏와同樣 宣言[illegible]로信한다더라

東三省大演習擧行決定

(奉天電) 張作霖氏는通遼擧行한奉天師團大演習이好結果를得한故로更히東三省大演習을行하라고奉天에서三個旅、吉林、黑龍은二個旅式出動하고來十五日頃長春一帶에서擧行할豫定이며目下吉黑兩省과協議中이라더라

中日郵便協約調印

(北京二十八日發電) 日中郵便協約規則을終了하얏는데調印은三十日이나滿鐵附屬地는除外되얏다더라

山東土匪青島脫退計畫

(濟南二十八日發電) 山東土匪三百餘名은日本官憲의撤退를待하야青島를脫出코자하는데日本官憲은此에對하야方策이無하고田督軍은目下對策을考慮中인데中國人은大抵濟南方面으로避難하는中이라더라

青島土地問題解決

(北京二十八日發電) 青島土地問題는懸案으로하고解決하얏는데中國은日本의主張을默認하얏다더라

歐米情報

英希國交斷絕

(倫敦二十九日發電) 英國希臘間의國交가斷絕하얏다더라

別報

(雅典二十九日發電) 雅典駐紮英國公使는希臘關係를斷絕하고廿九日夜에雅典에서退去하는意로本國政府에通告하얏고但財政管理委員『시ー에ㅅ치、페ㄴ크』氏는尙且當地에殘留한다더라

希臘敗戰責任者處刑

(雅典二十八日發電) 小亞細亞에서希臘軍이敗戰의責任者로前閣僚及將軍等에게關한裁判은今回에終結하얏는데『구ー나리스、스토라이스、스토라이구스토스、푸로토핫파사기스、데오도기스、바루다쓰치스』及『하지아네스디스』將軍은死刑『구ー사』『公提督』『토라치쇼스』將軍은無期徒刑으로宣告되얏다더라

經濟會議前途悲觀

(巴里二十八日發電) 『부랏세ㄹ』經濟會議의前途豫想은悲觀에傾하고米國은當分間은歐洲諸國의負債消滅問題를議할意가無하며佛國首相은獨逸賠償減額을贊成치아니하고又白耳義가生產的抵當物에關하야佛國과意見이同一함도明白하다더라

露瑞通商條約交涉

(東京電) 勞農露國과瑞典政府間에九月부터通商條約交涉을開始하고伯林에서露國委員과瑞典委員間에非公式의商議가行하얏는데其後『스토ㄱ크호루ㅁ』에서交涉한結果十一月初旬에至하야歸決하고不遠間瑞典政府는議會에서此를報告하야承認을要求하게되얏다더라

米國要求와英國新聞

(倫敦二十八日發電) 駐伊米國大使로近東會議의傍聽人인『자일드』氏가近東의門戶開放과利權의平等을要求하얏슴에對하야英國新聞는此를意外로思惟하며此는『상레모』條約及其後의態度協定은皆障害를受하는理由이라더라

米國議員反駁

(華盛頓二十七日發電) 米國元老院議員『힛치코크』氏는關茵地方의黑人軍隊의關한『크레만소ー』氏의批難에答하라고陳述書를發하야辯駁하얏다더라

佛前首相辨明

(紐育二十七日發電) 佛前首相『크레만소ー』氏는市俄古에向하는中에余의演說은決코佛本國에在한有力者를代表한者이아니오佛國에서도余의訪問에反對하는者도有하고余의演說이一般에不快를與한貌樣이나此는余가思惟할지라도無用의事이라고言하얏다더라

佛前首相到市

(市俄古二十七日發電) 『크레만소ー』氏는『파ー싱구』大將等의盛大한歡迎裡에到着하얏는데氏는二十八日當地에서演說하고十二月十一日米國農務局을爲하야도演說한다더라

『라인』地方分離運動

(伯林二十八日發電) 『코론』의報道의依한즉『라인란드』地方에莫大한經濟的援助를與한佛人의指導下에又復同地方分離運動이擡頭하야該亂動의首領『스메쓰』氏는其部下의總會를二十八日에召集히얏더라

獨賠償履行强制計畫

(巴里二十八日發電) 二十八日佛國議會는大統領『밀란』氏를議長으로하고『쮜쏘수』元帥賠償委員會々長『바루쓰ー』氏等도列席하얏는데其討議한賠償履行强制計畫의內容에對하야는아직何等의公報도無하나右計畫中의一은佛國의產業에對하야供給할石炭及骸炭을正確히引渡케할保障으로更히蘭茵河畔의獨逸領土를占領할模樣이며此等의手段은開催될『부랏세ㄹ』聯合會議에서諸般問題의解決이順調로進行치아니한境遇에執할者이라더라

佛國『루어』地方占領說否認

(巴里二十八日發電) 廿七日『헤리제ー』宮殿에서開催한閣議에서『루어』及『보휴유므』『뒤유쓰셰ㄹ도루푸』의北東二十六哩를合한『루어』地方三分의地帶를占領하고且蘭茵左岸占領地帶를合倂한件에對하야討議하얏다함은官邊에서는全然否認한다더라

墺議會財政恢復案可決

(維也納二十八日發電) 墺太利議會는國際聯盟의墺太利財政恢復案을可決하얏다더라

英『로、아』兩派結合

(倫敦二十八日發電) 英國前首相『로이드조ー지』氏는再次『아스크이스』派自由黨과結合하야其下에서活動할터인데此는『로이드조ー지』派自由黨과『아스크이스』派自由黨間의結合을審議코자하기爲하야兩派의下院議員等이開催한會合에對하야二十八日夜에發表하얏는데自由黨의大排者는廿八日陳述書를發表하고右兩派의後援者는『로이드조ー지』派가總選擧에際하야現首相『보나로』氏를支持한件에對하야質問하얏고但兩派의感情은極히友誼的으로更히會合하게되얏다더라

貿易復舊無望 英藏相演說

(倫敦發電) 英國藏相『보ー루드ー인』氏가『스와ㄴ시ー』의商業會所午餐會에서演說하야日貨의時勢가安定한後가아니면貿易의復舊는望키難하고且賠償問題解決도不可能하다고斷言하얏다더라

愛蘭前市長妹保放許可

(더부린二十七日發電) 前『코ー크』市長妹『마리ー맛크스위니ー』孃은獄中에서絕食中이든바保釋을許하얏다더라

馬克又復低落

(倫敦二十八日發電) 馬克時勢는一磅에對하야三萬六千十馬克이되얏는데二十六日에比하야二千百九十一馬克이續落하얏다더라

續報

(伯林二十九日發電) 馬克時勢는一磅에對하야三萬九千四百一馬克이라더라

近東後議彙報

米國門戶開放主張

(로와ㄴ누二十七日發電) 米國은近東講和會議에서門戶開放維持를主張하고勝利를得하고英國委員은『산레모』石油協定의撤回를發表하얏스며尙且英國外相은門戶開放에對하야英米意見이全然一致한旨를發表하얏다더라

露國抗議 開會通知에對하야

(로와ㄴ누二十八日發電) 土耳其代表『이스밋도파사』氏英國外相『가ー쏘ㄴ』卿及佛國代表『바레르』氏는新形勢의對策을密議하나巴里新聞의報道는會議가意外로速히終結할줄로豫想하고露國側은會議開會의通知를受取치아니한다고抗議를提出하얏스며『스칸되나비아』諸國은『로와ㄴ누』에代表를送하야土耳其에서享有하는特權에關한各自國의意見을開陳하도록案內를要하얏고印度回教徒委員會는土耳其代表에게打電하야土耳其에對한援護를不怠하는旨를通告하얏다더라

土耳其代表賠償要求

(倫敦二十八日發) 土耳其代表『이스멧도파사』氏는希臘軍으로因하야蒙한損害賠償을要求하고土耳其는舊『옷토만』帝國自體의債務一部를負擔치아니한다고聲明하얏다더라

汎亞細亞主義講演 『亞細亞를歐米에서解放하라』

(東京電) 汎亞細亞主義를持하고亞細亞를白人의隸屬에서脫케하라는日本慶應大學光의會、早大潮의會拓殖大學『魂의會』帝大『日의會』가聯合하야三十日午後五時부터神田青年會館에서『라흘ー』事件으로有名한印度『보ー스』氏의『復興亞細亞印度』『阿富汗斯坦』『푸라다부』氏의『興亞의曙光을望見하고』大葛周明氏의『레닌、한되ー케말』其他諸氏의講演에氣勢를擧할터이며此外他大學을聯合하야滿鐵의東亞經濟調査局(東京)을事務所로定하고歐洲의亞細亞民族牙利『뻐네데그트』敎授가不遠間參加하야國際的運動々자 行할計畫中이라더라

補給金、公債有望 總監運動奏効乎

(東京電) 各地方의豫算은目下大藏省에서詮衡中에在한補給金은約一割減으로決定하고 朝鮮은補給金一千五百五十萬圓의要求에對하야 一千三百五十萬圓、公債三千萬圓에對하야 二千八百萬圓內外로認하나有吉總監이熱心으로原案을主張運動하는關係도有한則 其削減의度가意外小額이될는지도不知하겟다더라

國防充備費

(東京電) 日本國防充備費는二十四年度々지繼續事業인데豫算關係上兵器는大藏省側에서는三十年度々지延期할意向이엿스나交涉의結果二十九年度々지延長하게되얏다더라

青島總領館員

(東京電) 山東을引渡하는同時에設置될日本青島總領事館員은左와如히決定하얏다고確聞하얏더라

總領事 森安三郎
領事 八木元八
副領事 森岡正平
領事官補 岩崎元吉
同 古賀源吉

朝鮮師團整理 第二回

(東京電) 日本陸軍々縮中朝鮮師團(第十九第二十)의公定員六個師團(四千八百名)의整理는第一回를去八月十五日에行하야十四年에完了할터인데其第二回分約五百名은十一月三十日滿洲守備隊의除隊員과共히歸休케할터이라더라

馬賊潛入偵察

本月初旬通化縣通化府를發한馬賊頭目海深의部下라稱하는者十六名은撫松縣西大嶺을通過하야長白縣內에潛入하야二十日十九道溝에到着하고長白府의警備狀況을調查한後何處로隱身하얏다는報가有하야長白縣知事는二十二日呂警察隊長以下三十名으로하야금狀況을偵察하기爲하야同方面에出動케하얏다더라

美濃部總裁留任

(大阪二十九日發至急報) 朝鮮銀行美濃部總裁는留任하기로決하얏다더라

醫院收價規程改正

朝鮮總督府醫院及道慈惠醫院收價規程中左와如히改正하고大正十二年一月一日부터施行하는旨를十二月一日附官報로告示하얏더라
藥價의部中『金二十五錢』을『金二十錢』으로『金二十錢』을『金十八錢』으로改함

安田家寄附 社會事業에百萬圓

(東京電) 日本安田家에서는今回東京府社會事業協會에金百萬圓의寄附를申請하얏다더라

學校費評議會開催

京城府學校費評議會는來十二月四日組合會議場에서開催하고船橋町普通學校教室及講堂增築費中三十萬圓을殖銀에서借入할件에對하야利率年八分이든바를殖銀의利上으로年八分五厘로變更할件을諮問한다더라

文書課長更迭

總督府文書課長更迭에關한辭令發表는既히昨紙에報道하얏거니와前課長安武直夫氏는大正八年에齋藤總督이赴任하야諸般官制及其他에大改革을加하든其當時에水野前政務總監의系統으로또한本府의文書課長을被任하야並히煩累한文書事務를整理하는同時에由來의形式的煩弊를打破하고簡捷에努力하야該課의面目을刷新한貢獻이不尠하얏스며또한氏在職中一個年間自費로歐米의視察을行한事도有하얏는데今番에新設된社會局의庶務課長으로榮轉되얏스며右氏의後任인倉橋鉦氏는統計課長으로在職하면서文書課에兼務하야安武氏를補佐하야共히文書事務에盡瘁하든터이라右兩氏의雲路驥步는展開할餘地가多有하더라

男女兩性의差異

男女의心身上에는各樣相違한點이有하거니와人의所言을眞實히認하는被暗示性과感動性이多함은女性의特徵이다◇此는女性의神經과筋肉의動作이男子와有異한所以니女性은非常히興奮키易하야若干接觸하야도神經이動作하야筋肉이顯著히收縮한다◇此作用이顯著한것은膀胱이니伊太利生理學者『모쏘소』氏는『膀胱이人身의精神을計量하는機械』라고까지하얏다◇假令恐怖心이生하든지憂慮하든지總히精神이緊張할時에는即時膀胱이收縮하야小便이出하라하고腹部가膨脹한다◇又一原因은女子腹中의臟器가男子의臟器보다甚大하야其結果로神經과筋肉의興奮性을强大케하고又內臟이重且大한故로起立動作할時에는內臟이下하고此를仍히放任하야繼續勞働하면神經과筋肉의發揚性을强大케하야畢竟『히스테리』(女人의一種神經病)症이發生한다◇『히스테리』라는希臘語에子宮이라는意味니此는『히스테리』가子宮으로因하야發生한다는生覺으로命名한것이다◇即女人은下腹의內臟이大한故로起立하면下하고此로因하야神經과筋肉을牽引하야畢竟神經에異狀이生하는것이다

漁業船數定限改正

大正六年朝鮮總督府告示第二百四十七號第一種許可漁業船數定限의件中『十艘』를『十二艘』로改하는旨를十二月一日官報로告示하얏더라

森林保護區加入

大正元年朝鮮總督府告示第十六號森林保護區域의件中富居保護區의項中『三海面』의下에『慶興郡豐海面、新安面、雄基面』을加하는旨를十二月一日附官報로告示하얏더라

米國大使入京期

東京駐劄米國大使『와ー레ㄴ』氏는書記生一名及令息二人並家庭敎師를伴하고十一月三十日東京驛發十二月二日夕에入京하야一日滯在한後奉天을經하야北京으로向할터이오歸路에는奉天을經하야大連에至한後同地에서乘船하고同二十日頃神戶에着할豫定이라더라

民聲

▲古來로虛則實하고實則虛라하는말은虛實兩端이互相循環하야互相變化하는法則의關係가잇슴으로虛中에도實이잇고實中에도虛가잇다하는것이다▲이러함으로이虛實이用兵上의惟一한奇法이되며互相顚倒하야臨機運用하는境遇가常多하엿나니中華古代에軍謀家로著名한孫臏의減竈와孔明의西城彈琴과갓흔것은虛에實을用한것이오諸葛亮?…實에虛를用한것이다▲그런데一面으로다시보면虛는假요또는權詐가되고實은眞이요또는正理가되는故로虛와實의變化上法則을잘못運用하다가는假와權詐또는眞과正理가確然히判斷되여發露가된다▲그러함으로이것을함부로運用을못하는것인데다만實力이充足한富强民族은假面的權詐를或가다가運用할지라도屈伸自在한實力이本是充足함으로容易하게發露가안이되여假가眞이되고權詐가正理가되는수도잇지만은▲이富强한民族도이것을長久히運用하다가는百病齟齬가一處로蝟集하야破綻되는日에는收拾을할수업고挽回를할수업시崩壞하야氷山雪海갓치되고만다▲그러면實力이本是全無하야自立自存을못하는劣弱民族에야이것을一回나或運用할지二回만運用하여도假飾과權詐가破綻되며다시運用할수업는것은姑捨하고維持力과堪耐力이缺乏하는것인대이것을茶飯갓치運用하면이將來가어지될가實로可悶하고可慮할일

醫院藥價引下

總督府醫院及道慈惠醫院收價規定中藥價의部二十五錢을二十錢을十八錢으로改正할件은十二月一日附朝鮮總督府官報로告示할터인데此施行은來年一月一日부터이라더라

商況

大阪株式 十一月三十日前場

銘柄	寄	引
大株	一〇〇、六〇	一〇〇、六〇
同新	八一、八〇	八一、一〇
鐘紡	二七八、一〇	二七八、四〇
同新	二六一、〇〇	二六一、〇〇
商船	四三、〇〇	……
同新	一〇、七〇	……
郵船	八五、九	八七、〇〇
同新	二九、九〇	……
東紡	一〇九、〇〇	一〇九、五〇

東京株式 十一月三十日前場

鮮銀 同新 東拓 同新 滿鐵 同新 殖銀 同新 東株 同新 取新 毛紡

未着

京取市場

京取强保勢

今朝大阪大新이昨日前場止價보다七十錢高로配當落七十九圓五十錢과鍾紡新이五十錢高로二百七十圓九十錢으로入電되매本場人氣는幾分無味로立會하니京取는昨日配當落反戾로五十錢高하야四十九圓一十錢에寄付하니有田川崎中津田中池田坂田賣에新田塚野中村櫻谷方主煥橋下買로漸進의勢로步調五六十錢과七八十錢으로六圓々지賣買하다가結局五圓九十錢에止하엿는데約千株取引되엿고仁取는付價無도同新은四十錢高로四十一圓寄付하야三五十錢으로結局四十錢에止하엿고安取는無勢하야賣買不成하고大新은阪地의小回復을隨하야五十錢高로八十一圓寄付로多少賣買하다가跡不成하엿고週間에는丸信十圓九十錢쯤으로其他株는閑散裡에止場되엿는데場面은昨日所報와如히阪地의堂島筋高倉投物과積極銀行休業의問題로一朝에人氣가恐慌心을惹起하야一大波動을出演하엿는데多少間一段落着된模樣인지稍復의勢로配當落으로는比較的穩健하게入電되매本場人氣도幾分活氣를呈하야漸騰의勢로多少間反撥하리라云하더라

京城府長橋町六十番地 京城株式現物取引市場 株式仲買人 金應龍 電話本局 一八五〇 一八九三 市場專用 一八八五 一八六九

短期取引前場

	取	取	新	新
寄	四五三〇	—	四一〇〇	八一〇〇
引	四五九〇	—	四一四〇	—

短期取引後場

	取	取	新	新	取
寄	四六八〇	一八八〇	四一八〇	八一八〇	一二四一〇
引	四六七〇	—	四二〇〇	八一三〇	—

京城綿糸布時勢 十一月三十日

品名	價格
三A	二六六、〇〇
九龍	二五六、〇〇
大A	二四六、〇〇
金[illegible]	二三五、〇〇
金剛山	二三〇、〇〇
[illegible]同	一八五、〇〇
木綿作	一、〇〇

京株市場賣買價 三十日

株名	今週中前場	今週中後場	來週中前場	來週中後場
京取	……	……	……	……
仁取	[illegible]	……	……	……
同新	[illegible]	……	……	……
[illegible]	[illegible]	……	……	……
[illegible]	[illegible]	……	……	……
[illegible]	[illegible]	……	……	……
[illegible]	[illegible]	……	……	……
[illegible]	[illegible]	……	……	……
[illegible]	[illegible]	……	……	……
同新	[illegible]	……	……	……
同新	[illegible]	……	……	……
東拓	[illegible]	……	……	……
同新	[illegible]	……	……	……
韓一	[illegible]	……	……	……
同新	[illegible]	……	……	……
[illegible]	[illegible]	……	……	……
京電	[illegible]	……	……	……
電興	[illegible]	……	……	……
朝郵	[illegible]	……	……	……
[illegible]	[illegible]	……	……	……
中鐵	[illegible]	……	……	……
[illegible]	[illegible]	……	……	……

大阪期米 十一月三十日前場

綿布飛犬 一二、六〇
同世樂島 一二、一〇
同金布進寶 一三、二〇
同金鼎 一三、〇〇
綿糸扇面 二八、〇〇
同雙女 二四、〇〇

當限 寄 …… 止 ……
中限 寄 …… 止 ……
先限 寄 二四、一六

仁川米豆取引所仲買人 仁川府海岸町 谷仲買店 △長電話 壹參七番、五五五番

先寄 二四、二一
(二節) 二四、二二
(三節) 二四、二四
(四節) 三一
(五節) 三一
(六節) 三〇
(七節) 三一
(八節) 三八
(九節) 三五
止 二四、三六

仁 期 川 米 福 小林藤右衛門

仁川期米 十一月廿九日後場(小往小來)

今前場은大阪二十四圓二十錢臺에서採合不振임을伴하고二十圓六十錢으로四十一錢々지反落하야保合의態를示한뿐이러니阪地八節五十錢의突飛의高報를接하고人氣俄然熱狂되야七十錢々지奔騰하엿다가六十八錢에頑强히場을止하든바인데今後場에至하야大阪初付二十四圓五十錢으로二節四十九錢인情報를反하고立會하니
▲第一節 中限은不成이나先限은二十圓五十五錢으로前止價보다十三丁低히意外軟弱의形勢로初付하다
▲第二節 阪地後報四十七錢인稍低를受하고中限은不成이나先限은立會後에賣買가無히閑散寂寞하든中⑦筋으로부터四五百石의賣注文이投入함을見한二流筋의賣場으로五十二錢에始한後四十五錢々지崩頹하엿다가九錢으로稍返하야止하다
▲第三節 阪地後報三十七錢으로四十錢인稍低稍高를受하고中限은不成이나先限은五十錢에始하야七錢々지小戾하엿다가四十七錢으로反落하야止하다
▲第四節 中限은不成이나先限은十五錢에始하야四十八錢으로小戾하야活氣가無히止하다
▲第五節 中限은不成이나先限은四十八錢에始하나局面은亦焦付하야五十錢々지小戾하엿다가四十九錢에後場을止하니高低의差가十二丁이더라

仁川米豆取引所仲買人 有價證券 現物賣買 坂倉仲買店 電話長一四一番 長六五〇番 三五五番

十一月三十日前場 (依然保勢)

昨後場은大阪二十四圓五十錢으로四十錢臺의情電을接하고當地亦二十圓四五十錢臺에서揉合하야阪地止價二十四錢인低報를傳하나場面에何如한影響이無히亦四十錢臺에서頑强한態度로場을止하엿는데今朝에至하야大阪初付二十四圓二十二錢인情報를受하고人氣는依然感應이無할뿐不啻라反히幾分의硬味로써立會하니
▲第一節 中限은不成이나先限은二十圓五十錢으로昨止價보다一丁高히初付하다
▲第二節 中限은亦不成이나先限은前節過高의反動으로四十錢에始하니此際에阪地二節二十四錢三節三十錢인稍高의報를傳함으로買氣又復旺盛하야五十四錢々지跳返하엿다가五十一錢에止하다
▲第三節 阪地四節三十一錢인情報를受하고中限은不成이나先限은五十五錢에始하야四錢々지稍押한後九錢々지跳返하엿다가六錢으로反撥하야止하다
▲第四節 中限은二十圓六十三錢一口를生하고先限은五十四錢에始하야五十六錢々지小戾하엿다가五十錢으로小弛하야止하다
▲第五節 阪地依然三十錢臺를傳하고中限은六十錢一口를生하고先限은五十錢에始하니賣氣가稍히活氣를呈하야五十七錢으로反騰한後에無事히納會하니今節高低差가十九丁이더라

初付	二十圓五十錢
止位	二十圓五十七錢
高値	二十圓五十九錢
安値	二十圓四十錢

株式會社仁川米豆取引所仲買人 力辻川仲買店 電話長 一六九番 二三五番 二四五番

當限受渡

十一月限受渡價格은二十一圓二十七錢이요受渡石數는一萬百石인데受渡方은左記와如하더라

渡方	受方
㊂三〇〇石	因一〇、一〇〇石
⑦九〇〇石	
力五、七〇〇石	
力二、八〇〇石	
㊄二〇〇石	
㊂二〇〇石	

平穩한月終戰

目下情勢는疏仁을不問하고特筆할材料가無히二三十丁範圍內에서一張一弛의微波로保續相支하는中小口賣買에不過할뿐이라然而硬派의說을擧하면單獨米價低落의關係로農家는賣로賣惜하는狀態이라하나軟派의主唱은一二日後天候가良好하면地方으로부터週出하는數量이又復增加하리라하며又는今日四圍의經濟事情을察하면往昔歐洲戰亂以前의時勢를到底히望하기難함으로未曾有의豐年이라할지라도時代가時代인程度에依하야十九圓以下의低價는更無하리라力說하는派가行하나此는未來에屬할뿐이요新甫發會後에는多少興味가有한時勢를演出할줄로推測함이더라

三十日後場(電話)

	公定價格
一節	二十圓五十錢
二節	二十圓四十九錢
三節	二十圓五十六錢
四節	二十圓五十七錢
五節	二十圓五十四錢
六節	二十圓五十五錢

付初 …… 止價 …… 高價 …… 安價 ……

高價	……
安價	……
一節	……
二節	……
三節	……
四節	……
五節	……

取組高
當限 ……
中限 ……
先限 ……
賣買總石數 ……
本期總取組高 ……

仁川米豆取引所仲買人 大仲買店 店主 堆浩 電話 一八〇番 一二二番 一三一番

仁川米豆取引所仲買人 仁川府海岸町 仲買店 電話長六九番 長參六七番 電略(ト)又七 (マルト)

仁川米豆取引所仲買人 ⑦ 廣澤正次郎 電話 長七〇番 六五番 六〇番 仁川宮町廣澤米穀部 電話長三〇七番

中國人의國權回復熱

상해회심아문의권리를회복코자

상계련합대회는외교당국에건의

중국상해공동조계(上海共同租界)에 잇는 회심아문(會審衙門)이라는 법마톤이관이잇는데 디에 중국사람과 외국사람사이에 관계되는사건은 각국령사(領事)가 배심(陪審)하고 또원고와피고가다중국사람인경우에는 중국관헌이 심판하는법레러니 매일혁명면서에 각국령사는 중국이아직 각국의송인을엇지못하얏다는 리유로 제도를변경하야 단순한중국인관계의 소송도 각국령사가 심판하게되야 금일까지 일으럿는데 상해상계련합대회(商界聯合大會)는이것을천파갓치 회복하지못하면 국권을손실함이라하야 목하신중히 토의하야외교당국에 건의중이라더라(상해)

赤化運動

中東線의赤軍

착착진힝하는중

히항(海港)에 적군의세력이 하로도라간후에는 극동전부가 적군의세게로화함은누구든지 아는바이어니와 현금적군의선련정책이아리와갓흐니

(一)최근에텰도위원(鐵道委員)동외회의가루차례회되야동화연선(東華沿線)에대한 회는동과극동공화국적에가입할을권유하는 중―터하야협의가엇섯다하며

(二)조선독립당과런락하야 밀한계칙을원조하며 선련원을 다수히파송하야 무장회치된티 군에게 공산주의를교취하며

(三)지나간칠일로홍정부오주년 기념일에는 그들의선전이평양하얏고 텩군에만주리방면에군사를보낸다고말을니여빅군으로 하야금 부독이 극동공화국국적에입적케하도록힘쓰며 입연으로중국측에대하야 국립으모빅군에게 원조를못하도록교섭한다하며

(四)위항방면에더향하는자는반다시「치샤」대표의더힐권을필요로하는규뎡을제뎡하야 텩군에 돌지안이하면 그방면에더힐도 못하게하며

(五)연선(沿線)에피난한빅당에 디하야는 극동공화국에귀순하도록포고문을공포하얏다더라 (상해)

『레닌』夫人의大活躍

청년시대에결혼한뒤로금일까지

위험을무릅스고정치교육에열중

로농로국(勞農露國)의위인(偉人)「레닌」씨의 부인은 그나라정치교육의 지도자가되야 가장중요한사무를 담당한가장분망한 로국데일의 녀걸(女傑)이라하며 최근에는로농소년(勞農少年)을위하야교과서를 편찬하며 또정치교육을선뎐하기위하야 연설가를 지도하며일반로국인에게공산주의(共產主義)를선뎐하기위하야밤낫으로분투한다더라

別報

그부인은 금년에 오십삼세가량이라하며「레닌」씨와동향출생으로소년학생시대에 결혼하얏는데「레닌」씨가 서서(瑞西)에망명하얏슬때에 위험을무릅쓰고 활동을동일히하얏다하며 공산당원중에는 최초수령중의 한사람이라 부인의집사짜리에두고 질소검박한 검은옷을입고 항상집무하야 과더한사무를처리하기에 열중한다는데 부인의주관하는 처무는 (一)학교에서 치더감화를 식히는것(二)농민교육(三)적군에대한정뎡선한이라더라(상해)

各地의暴風

殷栗에서破船

죽은사람은업는듯

지난이십륙일에 돌연히바람이일어나서 소동이되더니 황히도은률군장련면직던리(黃海道殷栗郡長連面稷田里)압혜아골이라는히변(海邊)에서는다섯척이파손되야일시터소동을 일우엇스나 다힝히사람은무사하얏다더라(진남포)

舒川에도破船

사공네명이죽고

손해가이천여원

충남(忠南)셔천군(舒川郡) 셔면(西面)마령포에셔는지난십일월이십삼일밤에벼(租)이빅셕을 싣혼비가줄디에 폭풍을만나 비를큰바위에부듸처 파괴되고 사공네명은 부지중파도에 쌔져죽엇다는데그시테와 곡식은파도중간곳이업다하며사공의주소는동면도둔리라하며곡식쥬인는경성시니조준호(趙俊鎬)라더라(보령)

米의親善

十餘年論도敎育

내우친절

(본문) 가위絶滅하엿섯스나 근년에 미국렬 許하고 모다絶 意思가無하다하러니와 來로現今까지오도록最近年서항 言하면多少의制得를當하야발달 敎育事業을振興코저할진대 미 可能이라하면勿論不然하다하면 티向學熱과敎育觀念이進步에 함은다만學生의道路에彷徨십 究으로證明할바이요旣無하야 십 이連續的으로設立되야挾書는 는新進少年을全部招集하고 羅하야그의前途를開示하며 다함은充分한事實을不見하겟 言코저할진던齒가酸하고思코 진된會聽이塡함과如하도다 現今우리가目下環境에處하야 趣가懦弱한者는將來를悲觀하야 編할바이오그血氣가强烈한者 現狀을打破하야根本問題를解決 後가안이면餘事는擧論치안코저 는言動부터요敎育事業갓치重大한 題目에對하야는全體의心力으로그 解決을圖謀하여야비로소效果를得 할今日에도리어汗漫히思하야幾個 有志에게放任하고傍觀하는態度를 取하는傾向도不無하니그退縮하는

職業團軍과戰爭을計畫

交涉委員이昨朝에出發

경성의유수한선수들은미국의

실업단과자웅의결단을고대중

엇더한나라를물론하고운동계(運動界)를말할서에는 다한가지식의 특별한기예가잇서서그것을가지고 세계에널니자랑을삼는것이나그중에도데일로써미국(米國)의쌔쓰쌜(野球)이라하면 세계뎍으로다아는바이다 그리하야 우리조선의 황페하얏든 운동계도 이제에일으러다시세계뎍으로싸우워보지안으면안니되겟다는 리상하에날노날 진보가되여감은 우리의

운동계를

보와서 눈에압바 그와 현재에일본으로와서전 그와 밍렬이싸우는 미국직업 히職業團이란 쌔쓰쌜의 國家 우리조선에서도 할가지 부러다토워보지안어서는 어도 國際的운동계의 수치에지나지 안올바이닛가우리는우리힘터로써 그들과밍렬한싸홈을하여보겟다고 우리조선에서일즉이운동계를위 어엿스며또한우리조선운동계를티표하야 뮝호단(猛虎團)이란 명목하에멀니 일본싸지 원뎡하여가지고 그곳에잇는 일본사람을놀나나게하든로장의리원용(李源容)군과또하현저우리운동계에서

가이주장

안이될박석윤(朴錫胤)군동이그동안여러방면으로 널니주선한결과에작일오전열시특급차로일본을향하엿다는데 일본으로가서그직업단과합씨협의를한후 즉시그들과한가지우리조선으로나와가지고일터자웅를겨루리라더라

大同江에도慘死

작사비가파선하야

세사람이참사하다

바라지도안는 가을비는 부슬부슬 써러지고 돈풍이휘날리는우에 모진광풍은산갓치 파도를일으키는엇써에 평안남도 강서군장안면안석리(平南江西郡長安面安石里)에사는 김원칠(金元七)외에인은 지난칠일 상사차로 일엽선에다가가득이무울싣고 평북지방을 국뎡하고자거놀리뒤ㅅ어구에서부터 써나가다가비가파선됨써이세사람은영영황천의수중에비참히장사하게되얏다더라(강서)

調節實行을協議

경성룡산에잇는

각유지들이협의

요사이에한참동안 세상이알도록 써들든물가됴절(物價調節)문데는 엇지된것을몰으게슬그면이아모말이업시되고 말앗슴으로써어느이에디응책을연구하여가지고 물가조절문뎨를디응코자 경성룡산에 잇는각계급들을망라한후구톄뎍으로착수하자는 의견하에 저작일오후여섯시경에 룡산신옥루(龍山新玉樓)에각유지삼십여명이 모되여가지고 협의를하얏섯다는데 될수잇는데로는 속히넙덩을하야 속히 시힝하도록 디응코저 한다하며 이 물로써 룡산상공련합회(龍山商工聯合會)까지조직할야는모양이라더라

鑛產界의曙光

금왕광산회사조직후로

일반광업계유지는락관

구주선징이후로여러가지형편에의지하야조선의광업가는비참한속에서침묵을직혀오더니근래서양의그모유력한자본가에서중국과및죠션을중심으로하고 은연중유망한광업권을다수취득할목뎍으로엇달전부터경성에돌어와조선광업가의유수한자와협의한결과로금왕광산(金旺鑛產)이라는주식회사를조직한후로부터총주수삼천주니에서이천오십여주는 임의발긔인측에서 부담하야가지고 양평(楊平)등디에잇는 광산세구역을 그회사에서구입하야가지고 처굴설비를 디뎌적으로 확장한다는디 이로부터심만의눈물을 흘니든 일반광업가는다시금 싱긔를닉이고 경제계의발뎐도차차유망하리라고광업가의일반유지는미우락관한다더라

『아』博士消息

조선에만오지못할쌍아니라

중국도못가고하와이로갈터

오날과갓치세게의과학(科學)이발달이되여잇는이써에서구(西歐)한모통이에서울니며웨치여나오는소리는온디구를흔든다이와갓치오날에입으러과학에입되신기록을주는 그는오직이세상의 모든것이절더(絶對)안임이업는것이며 이우주(宇宙)의모든현상(現像)이란것은 상대뎍원리(相對的原理)를버서나가지고 업다고하든「아인쓰타인」박사는

오날까지

명말에엿서서상 대성원리에더하야강연을하며올은 엄의보도한바어니와 또한박사를우리조선에서청하여강연코저조선교육협회의강인텩(姜仁澤)씨가일본으로가게될도엄의보도합과갓거니와 그동안 여러가지로써 강인텩씨가 일본에서 교섭을하여왓스나 저적역일에 강인텩씨만 혼자돌아오게되얏고「아인쓰타인」박사는오지못하게되얏다는데

중국에도 가지못할터이라 하며 얼마동안 동박사는일본각디를 순류한후에 오는하순경에미국명더「하와이로」향하야출발할계뎍이라더라

臺灣人의募兵運動

총독정치를반대하는림건당씨가

모집하얏는대당국자는대단우려

대만에대만의회(臺灣議會)의설립건빅셔(設立建白書)를데출하기도하며 항상총독정치를 반대하야대만총독부에서 가장주목하든 림건당(林建堂)씨는 그부하를시키여비밀히군병을 모집한일이 심일월상순에발각되얏는데그말에는중국남방정부의부탁을바더 그곳으로보내고자한것이라하며 응모된자도다수이라는데 총독부에서는 비상히우려한다더라

領舘燒失의原因

원경부는알수업다하고

송미형사는방화로주장

십일월이십칠일 오전한시심분경 간도일본총령사관에셔돌연히불이나서전소되얏다함은임의보도하얏거니와 그불난원인에더하야 그날밤의 당직주임(當直主任)이든 죠선인원경부(元警部)는원인이불명하다고말을하고경호(警護)하는송미(松尾)형사는노흔불이라고주장한다더라

露艦의出港期

명일에출항한다는데

가는곳의디명은불명

모처에도달한 정보에의한즉 부산항(釜山港)에뎡박중이던로국「스달크」함뎌심오척은 십일월이십구일 동삼십일에 출항할예뎡이엿더라(강서)

年末賞與가三百萬圓

京城市內에서消費될듯

년말의핍박한경성의경

제계는 양복세민의상여로써완화할듯

경제집박의바람이조선의수도인경성을음습하야온힘으로부터회사상점으로부터각료리점까지영향을바다서비참한현상에 잇슴은임의 세상이다아는바이어니와년말에일르면조곰나을쥴아랏던것이년말이되우압호로한달씀남엇건만는비참한상티는 의연이변함업는 그상티에잇슴으로 일반은더욱이 비참하고경성에도 금융게로는 데일번화하던 명치뎡(明治町)갓흔곳도현물취인의타격으로인하야 마참니 비참의상태를면치못하고 잇는 이써입으로

각방면에

우리는뎜뎜심하야지고 더구나압호로 얼마견하지안이한년말이라는 고통의 고개를엇지넘어갈는지 방면하야 경제계를지비하는 사람들은모다 비참한중에잇는모양인데경성부저무과장은말하되금년의년말도미우위험한줄로일반은우려하여비관하나는 밋슴니다 어것이비록일시적의일이지만은우리가경제의핍박을오로지미곡에만바라고

잇지만은

곡도 금년의년말은미 쌀의시세가 광산도만이오즉양 바로보면 경성시니에잇는월급성 활자가일만오천인가량인데금년년말의상여금을료사하면한사람에게 이원뎡권을잡어가지고삼빅만원은우리라하외다 그러면이

삼뵉만원

이라는돈은거의다경성에서 소비하게될것이외다 그러면년말은과히심한핍박은면할듯하외다벌서부터료리업자가월급을만흔사람에게는외상을주어도관심할자에게는외상을주어도취인소써단이는사람갓흔이에게는별로외상을주지안으려는우슴의소리도들린다하며 ……다고랑한다더라

萬餘郵員의失職

중국에잇든일본우편국

명년부터텰폐케됨으로

중국에잇는 일본우편국의 텰페를 명년일월일일부터실시하게됨으로 약일만삼천원의 우편국원은 직업이써러져서 할수업시 울며서자기나라로도라갈밧게업는처량한운명에색젓슴으로 일본에서 당국에서는 그인원처리문데가 비상히곤난하야큰두통거리로지난다더라(상해)

親切한配達夫

민속히던한다고

엽서한장이라도

근자의 각디방우편소 비달부들의친절함과 민속히던하지 안는다는사회의 비평이날々이 더하야감은 누구나다아는바이라 그러한중 평남강서군(平南江西郡)에우편소가네곳이잇는바 어느곳에도 또한불량한비달부들이 잇서 신문잡지가타편지등을 직접던하지안코 혹은화섬편으로 던하거나혹은시장에리왕하는사람에게로던하거나그러치안으면로변에잇는 술집갓흔곳에던지고갑으로 일변는시비가자자한바인데 그중에도동군함종(咸從)우편소에근무하는 비달부 연중준(田豐俊)뎡창모(鄭昌模)는 일은서벽부터나아가서 어두어질에를도라오는바 이두사람은단지 동우편소에 두사람밧기안인터 비금은텩고구역은널다하더라도일일히도라단니며서신등을친절히던하야 줌으로디방인사의 칭송이자자하며 더욱이나 신문잡지동비록한장이라도 면길을 헤아리지안코민속히던하야줌으로일반은비달부모범이될사람이라고 칭송한다더라(강서)

崔八鏞氏追悼式

협성학교에서고최

학성계동인주최로

홍원(洪原)학성친목회에서 고최팔용(崔八鏞)씨를위하야추도회를하얏다함은임의보도한바어니와명이일하오세시에는학성계(學生界)라는잡지동인일동의주최로협성학교(協成學校)안에서추도회를거최한다더라

轉禍爲福의洪氏

봉텬에서퇴거명령을당하고

장춘에가서영업이잘된다고

봉텬조선인협회(奉天朝鮮人協會)의간부를비텩하기위하야조직된공민정의단(公民正義團)대표자 홍성린(洪成麟)씨는 적총총령사(赤塚總領事)로부터 퇴거명령을 밧고 지나간구월 이십일 장춘(長春)으로가서잇는터 장춘정미소(精米所)를실립하야가지고 영업을하는데 더단히 확장되야가는동시에 부터에잇는 자긔의본가의동공사(義同公司)는 그자테가전반가족을 다리고 여전히 정미업을계속하야가는데 일반에게선 ……하야 미우흥왕하다하며 일반은말하되 적총령사는 벌을준것이도리여홍씨에게는상을줄것과갓치되얏다고랑한다더라(봉텬)

扶安名所(三)

邊山의直沼瀑布

이폭포로말하면 부안읍에서 서으로륙십리가량에잇는변산하긔에잇는직소폭포(直沼瀑布)인터변산에서흐르는터부분의물은 디기에곳으로 홀너세게싱의 바연폭포와 뛰지지를 안이하며 아레에잇는것은 직소폭포압으로잇는석문봉(石門峰)인터 봉우리에 퐁뉴직의홍도을논터인데 그돌에는그곳을 유람한이의감상하는사람이연누구나별유텬디의각상이업지못한터이다

少年職工을酷使

조선인의어린아희를

혹독히부리다가피소

일본대판난파서(大阪難波署)관내에는 다수한텩은공장이 잇슴으로 수년이래 어린직공을 사용함에 반하야 주밀한주의를하야 여러번 위반하는 공장주에게대하야 충고를하든바 지난이십사일에 일제히시찰을한결과 전부터 두어번이나설유를하얏슴에불만하고두번이나위반되야 고발된남구(南區)난파(難波)동신뎐뎡(東神田町)의 유리병제조업자평뎐삼일(平田三一)은직공최삼봉(崔三鳳三七)으로하야금 그직공의고향되는경상남도방면에보니여만구세로부터만십일세가량된두어명의직공을다려다가일급삼십오전으로혹독히사용한까닭이라더라

朱氏의家督相續問題

고주셩근씨의사후상속문제로

양자라는주응돈은소송을제긔

시니관동이번디의삼에거주하는주응돈(朱應敦)은변호사윤태영(尹泰榮)씨를디리로시니 다옥뎡(茶屋町)오십삼번디고주셩근(朱性根)씨의 친모가되는 김혜경(金惠卿)과 동씨의미망인송인화(宋寅和)를상디로경성디방법원민사부에 양자연조신고(養子緣組申告)와밋 가독상속권확인(家督相續權確認)과밋양자확인(養子確認)동세가지의청구소송을 데기하얏는데 이제그소장에써잇는니용의사실을보건더 원고되는 주응돈은 고주셩근씨와 심오촌의 숙질(叔姪)관계가되는사람으로지난달칠일에 주셩근씨가 급작히병에걸니여사망한후원피양씨로말하면아달을하나도두지못하야가독을

상속홀만

한남자가업는까닭으로 친겨송인화는 주셩근씨가 사망하든즉시에 주응돈을 불너가지고 말하기를자긔는 가독을상속할사람이업슴으로죽은사후양자(死後養子)가되여주기를 청함으로 주응돈은곳허락하고주씨일문의 승인까지 어든후자긔가상주(喪主)가되여서동월

십삼일에

장식을우사히맛치고 상제노릇을 잘하여오는터인데 그후에송인화는자긔실가의친척 『유산(遺產)을정리한다는아름다운일홈아리에서잇던한야심술치이고자음모하는엇떤의분자』들로부터만약양자를하면잇는재산은전부양자의 소유로돌아가고 미망인(未亡人)이라든지

기타가족

은수가라한아도 건드릴수가업슨즉 차라리 그리하는것보다는 양자를하엿드리도그양자를 부인할것갓흐면 유산은단연히녯사람의미망인이되는사람에게로 돌아가게되야 마음되로 저산을 관리할수도잇스며 처분할수도잇다는 감언리설에 유인한바가되며 돌연히주응돈의 양자됨을 부인하는동시에 자긔와도 하등의 관계가업다고 거절하고 의레히조선의종리의관습에 의하야 ᄯ상은 망부의

실모되는

김혜경에가호주가되며주응돈이가금칠일에사후양자로 결뎡하얏다는신고를경성부(京城府)에데출할의무가잇슴에도불구하고피고김혜경은자긔의누리송인화와상의한결과주응돈이가아직입뎍되지안이함을리용하야아저산권이자긔에게잇다고주장함

口頭辯論은七日

량방의 변론이잇슬듯

고주셩근(朱性根)씨가사망한후그집에는양자싸짐으로문데가섞기여설국소송싸지이르기엿다함은별보와갓거니와 금월칠일에경성디방법원에서쌍방의구두변론이잇슬터이라더라

仁川의通行記念

좌측통힝일주년기념

인천서에서도디선뎐

십이월일일은 좌측통힝(左側通行)을실시한지 만일주년 기념일임으로 인천경찰서(仁川警察署)에서는일반마차를사용하는영업자와기타에훈시가잇섯고 자동차로 부니그ᄂ순회하며 선뎐지(宣傳紙)를살포(撒布)할터이며각파출소순사에게명하야일반동힝자에게좌측통힝을장려하는등디선뎐을하기로결뎡하얏다더라(인천)

落葉一束에罰金

추어서죽겟는데

홀수업슴을내하

시내황금뎡오뎡목이빅이십일번디에사는장춘실의처되는 박성녀(黃金町五丁目張春實妻朴姓女四〇)는지나간 닷새ㅅ날 남산으로올나가셔로인뎡(老人亭)부근에서러저잇는 솔닙과솔가지를 글거다가서인것이요사이에발각이되여본뎡경찰서에서벌금오원의처분을당하얏다는데

瑞麟洞에棄兒

지나간이십칠일에

세살된게집아희를

지나간이십칠일오후닐곱시경에엇더한자의소위인지는몰으겟스나시니서린동(瑞麟洞)사십사번디김티식(金台植)씨집뒤문안에는나히세살가량이나되여보이는 게집아히한아를 둑거운솜니불에다가너어서바리고 갓다하는데 엇지할수업시전거김티식씨의 모친에서그아히를잠시동안이나마 길으게되얏스나한편으로는 아히버린자를찻는중이라더라

瓦斯毒으로窒息

화로에불을피여노앗다가

세사람중에한사람만죽어

시니계동칠십구번디 리티영(桂洞七九李台榮)씨집 힝랑방에서지우어려운살님살이나마 이서까지하야오든 안성운(安聖云四三)이란이는 동터문안 동안면조공장에물단이면서 지우얼마가되지못하는 삭전을버러서 집안식구세사람이지니여오든바 지작일오후열한시경에 그만어세상을 버리고죽게되얏다는데 이제그의사실을들어말하건되 전긔안성운의식구세사람이 그날밤에너무나치움으로써화로에숫을만히담어서방안에듸려노코자다가 너무나불의성질이과하야지독한까쓰(毒瓦斯)가발하며 전가집안식구 세사람이그불의독에취하야 몹시신음케되야잇신을못하고 잇슴써 맛침그집주인리태영씨의 어머니에서이를발견하고 즉시의사를청하야응급치료를하게되얏스나 그치료가아모효험이업시 그만 안성운은죽게되고안성운의처되는리씨(李氏四十一)와또한그의장녀잔란(長女十二三)이는겨우정신을차리게되얏다더라

長沙洞의小火

손해는오원가량이라고

시니장사동(長沙洞)일빅十번디에서음식뎜영업을하는신영순(飮食店營業申永順)의집에서 지작일오후열한시경에별안간불이일어나가지고 잠시동안 터혼잡을일우엇

우슴거리

偶發得中의成功

斗南生

녯날녯날썩녯적에명(明)나라에서 조선인거를시험하러나온다는말을 듯고 조선에서는엇더한수단으로 무슨시험을할는지모룸으로 조야가티우근심하는터에 김가라하는 사람하나가자칭을히얏는데 그는명나라에셔사람이나올써에 그원한사람에마조나아갓섯다 그런데나아갈써에인절미다섯덩이를먹엇셧다

나온사람

을무학지에서 그사람이로맛나서상티하얏는데 조선에서나아간사람을향하야 두손을동구란케만드러서보히거늘김가생각에는저놈이아마 나의떡먹고온것을알고저리하나보다 그런치만 닉가동구란떡을먹은일이업고 네모반듯한인절미를먹엇스니그디로알게하리라하고 곳손을들어네모반듯하게하야보히니

그것을본

명나라사람은 고기를ᄭᅳ덕하드니또손가락세ㅅ을펴서보이거늘 김가생각에는저놈이알기는안다바는속덜일엇다고하면서퓌기가안어라다섯ᄀ를먹엇다고다섯손가락을펴서보이니명나라사람이쏘고개를ᄭᅳᄭᅳ하더니 ᄯᅩ손으로수염을 만지거늘 김가생각에저놈이니수염에고물이무덧다고

그럿치만

나는뵈가부르다 고비틀만지면서보비 이것을보든명나라사람은 고만혼이나서 뒤도도라보지못하고 곳오든길을 향하야다라나거늘 갓치왓든사람이 연고을아지못하야 자세한연유을물는터 그사람은 땀을흘니면서하는말이 조선명인은 나보다몃층더고명한사람이라 처음에닉가 텬원(天圓)을아느냐고물은즉 ᄯᅩ디방(地方)ᄭᅡ지안다고하더니 ᄯᅩ닉가삼강(三綱)을아느냐고물은즉 오륜(五倫)ᄭᅡ지안다고하더니

혼것인데

그사람은 곰은속히고하고 염뎨신농씨를아느냐고하니 ……하니하며다라낫다나

잔소리

▲평양에서는인력거부가 조선사람은 일본사람이 일본사람은 일본사람이 태우고 조선사람은 조선사람이 태우기로 하자고주장하야 죠선사람인력거부는성활이곤난하다고▲참한심하다 엇지하다가요디경에되얏소 물론일본사람들은무엇을하든지 돈한푼이라도조선사람보다만히싱기넛가 인력거타는사람이만흘것이오▲조선사람은관텽이나회사이나또달은긔인영업이나 무슨일을하든지 수입되는것이그량반들만못하넛가 인력거타는사람이적을것이지▲다시말하자면 되다쎼앗기고 부엇잇느냐말이야 마지막에는그잘난인력거부도민족차별을하는홍에또조선놈은못살겟다고▲일본! 조선! 차별하는것조치 차별을쪽하여야만할것이지 총독정책에는차별을퇴페한다고 선언힛다지 그러나선언은선언이고 사실은사실이지▲총독은선언이나마하얏스넛가 할말이업지만은실디로차별을하는그인력거부들에게는 한마디말을보니고자한다▲일본사람이넛가일본사람을티우라고 조선사람이넛가조선사람을티우라고 그말조흔말이야 정히그리할것갓흐면그타는량반이 인력거나 일본으로인력거부나 일시에비를타고일본으로가는것이올치안이하나말이야▲사람은그디지차별을하면서도 아이는조선을못잇는그네들심정이 ᅵ고닉속마탓지별소용이업구나 그신세를싱각하니도속이타지만은

天氣豫報

日出	上午 七時二十分
日入	下午五時十九分
晴	一
時暈	自昨日午後三時 至今日午後三時
溫度	二十日 正午三一、五
華氏	同日六時最低二五、三

濟和醫院

仁川府外里七十七番地 (비다리南便)

醫師 朴廷植

內科 小兒科 花柳病科 入院隨意

外科 產婦人科 電氣治療 診察無料

多年食泣의好評을득한醫師의靈藥

腫症靈藥

定價大一包二十錢小一包十錢

各處藥局商店에셔販賣益々愛用하시고同業諸位는本舖注文하옵

京城府授恩洞百十九番地

普彰醫院大藥房

京城府樂園洞二百番地 廣文社 新刊紹介

叛蒙先生 吳榮根 著

演說及式辭法 全 定價六十錢 書留郵稅九錢 附 餘會通用規則

先生이普放館長과夜雷報主幹으로文化宣傳에盡力함은世人의熟知하는바 洗硯停筆한지數十年만에蘊蓄한才思와玄妙한理想을發布하얏스니 我東近世에稀有한傑作이라 上編은演說의理論及方法이오中編은公私會席에諸般式辭를網羅한者오附錄은各種議會의設立節次와處理規則等이니言論自由를尊重히하는今日에有志人士의出世秘訣이오無雙寶訣이라

時事講演錄 【定價每冊六拾錢式 書留郵稅每冊에九錢】 第一、第二、第三、第四、第五、

戰爭主義는平和的으로東縛主義는解放的으로世界의政治가激變하며 一瀉千里의急激한潮流를따라朝鮮의統治上武斷政治가突然히文化的으로換局된今日에十年間을積養하야 半島各方面에熟々한辯士들이 然登壇하야時事를痛論한것이라

男女聯合討論集 附女史講演 全 定價七拾錢 書留郵稅九錢

半萬年深閨에潜伏하얏든女子界가一朝에解放을主唱하고無數한巾幗丈夫가演壇에出現하야琅々한香語로奇男子의懸河雄辯을壓倒하라는妙境을映寫한珍本이라

歐米新人物 全 定價七十錢 書留郵稅九錢

是書는現今歐米列邦에政治大家로數하고過番歐洲戰役에靖亂元勳으로稱하는諸新人物의平生行狀과出世事業을各述한것이니其體는傳紀오其人은美國의위리손、英國의로이드쓰ㅣ지、法國의클네멘소、伊國의또리及베리사유議和會議席上에서抵掌談笑하는屈指名流라英雄을愛하고事業을企하는讀者諸君이여彼

中國維新人物誌 全 定價六十錢 書留郵稅九錢

五千年專制政治를一朝에打破하고世界的民主共和를創建한袁世凱 孫逸仙、黎元洪、黃興等一流人物로始하야時局風雲에龍戰虎鬪하든英傑乎、張作霖等에至하기까지略十人을網羅한英雄々傳이니我國과는歷史地理上永久히密接關係가有한支那研究에一大寶鑑이라

速成 英語自習 金字入洋裝美本 紙質堅牢 二百三十頁 實價一圓廿五錢 書留郵稅十二錢

此書는李君이歐米에遊歷하야數十年間實地學習한語訓과文法을規則的又는實用的으로編輯하고難解한先生이漢文及朝鮮語로單字와句의疑義를對照詳述하야初學者로도一讀瞭解케하얏스니我東語學界에模範的有益珍書라

普通國語 讀本 自習辭典 全 定價三十五錢 郵稅五錢

本書는普通學校教科用의國語讀本을卷一로부터全部網羅하야難句를引用하고 文脈을詳細히解釋하야 普通學校生徒의自習上必要한參考書로提供함도不無하니라

西太后傳 全 定價五十錢 書留郵稅九錢

呂后武則天의權威와褒姒妲己의妖艷과西施楊貴妃의妖艷을一身에備하야四十年間의垂簾에神州四百年基業을廢墟의悲慘케하니古今中國史中稀有한惟女傑이라

花柳病의一大奇聞

花柳의病毒을扶치못할진대 人生의一大快事는아니나 또흔賣藥謀利의賤丈夫는西半島의病魔를驅逐하고同胞의患者를延聘하고獨逸靈藥을輸入하야施한結果로百藥이無効하든難治病者實不可勝數라病愈한兄弟의感注文書가輻湊增加하니在上海我民位先生도吾人의此義擧를大贊成하야는原價實費로親切送藥하오니 …에在한兄弟는病症如何를詳細히記하야本社藥料部主任獨逸醫司鄭重히處方하야獨逸靈藥을親切送하는病錄一張과送藥料로六十錢郵票를引換小包로至急送藥하노이다(但關係上注文主의大利益되오니振替利用送金하시옵)

每劑自二圓至三四圓가량 每劑自四圓至六七圓가량

사불유 코레크

Korec

川路榮華里 佐公司藥料部

淋式 庫販賣 驛前 瀨商會金庫部

본치하약치와마희가풍우한족실야삽

地方患者와 사오니 설하야 연휴지 료를 ◎ 더방

請議하시압 特約 法醫

地番〇五一目丁一 ○〇六〇城京替振

仁行商會

命生의會商本은請商社速迅選精品物

봉이시여 보신향 상회 조선사람 가족은 미인이 이상이 한의 희자 계신 공부하여 이 이씨 조선의 명 세가 지 위 실금은 그 사회 신 이 아 대 편 안 한 의 의 리 로 구 다 혼 니

碧霞 (七) 著

[illegible] 바지가 내려오기 [illegible] 잇는 운텽호의 령 [illegible] 눈에는 영자아바지가 열고드리오는것을보자마 덕이러나더니 머리가방바닥이도록써비선거리며
「에ㅣ저…저는ㅣ 운텽호집사람이올시다」
하며 허둥거리엿다.
「응ㅣ그려 엇더라는말이야?」
하는 영자아바지의눈에는엄숙한빗이 석여잇다
「네ㅣ저는 운텽호의집에서 심부름을 하올는사람으로 오날 할수업시 주인의명령을 밧고 왓습니다. 그러하오나저의주인도 요사히여러가지사정으로히서 좀ㅣ옹석하온고로오날딱ㅣ을넘어업시 괴한터로 지불하야주시기를 바라오며 또는도저히 연귀는할수업습니다고엿주라 하여요」
하얏다 그러나영자아바지는이소리를 듯는둥마는둥하고
「듯고자하지도 안이하는말을두가하라나돈을바드러왓스면 돈표를니놀것이지 그맘위못난소리를왜ㅣ짓거리느냐말이야!」
눈을부릅뜨고하는영자아바지의말은 날아러웟다.
「네ㅣ잘못하얏슴니다」
하면서 허둥더이며 가방속에서 증서(證書)한장을 쓰니여다
어서에 영자아바지는 쓰니여이를 억구눈의압호로 획ㅣ던지이엿다.
억구눈이는 영자아바지의위엄에 등등한모양에 겁이나서벌벌써는손으로 지폐궁텅이를 집어서 한장식한장식세이엿다
「운텽호에게 너가말하드리고가서말햇 지금네가말할터이니그말을조금도세며뜻처말고하여주어 너가이러케구차하야서빗을지엿지만 운텽호어라하는위인에게는 허리를 굽힐사람은아니며 지어엿빅만원이라도 커한푼을조금도 어리지아니하고돈을줄터이니 그싸위어리석은수작을람고 뎡신을차릴것이오지금이세상이 아모리돈만아는세상일지라도 례의렴치가업는사람은 저도야지만못할뿐만안이라 반다시 그앙화가멀지아니하야잇슬것이니만약그터로검수외마음을 먹울것갓트면 운텽호의한몸에만 앙화가잇칠쌤만아니라 원집안에 그앙화가밋칠것이 명요한일이니 깁히삼가을 하지아니하면 어느날이든지 너의말을후회할셔가잇슬터이라고 전하게」
하는 영자아바지는 무순어린아히를 타일느는것갓치 엄숙히 말하얏다
「네ㅣ황송합니다 령감께서말삼하신터로 다뎐하겟슴니다만은 항용속에든것은 오직구린똥만은위인돈이오 힘은면돈잇드」一돈?
리가면 이것을방자하고 몸연지 볼일지도 도마다보지아니하고 날해이는쇠근을 가판에지오저도속에돈것은 조끔도업습니다만은 오직원수의목구녕이 모두청으로 할수업시박구삼나고 운텽호에게가서 이런일저런일을 하라는터로합니다만은저도사람이온이사에잇지그하는일이 올흔일인지 그른일인지 모르게습닛가 그리하와제가사새부득에 주인의십부림이은사람으로 덤에오기는옴니다만은 진정으로아니걸니는가름을 억지로옴기며놉니다 그려치만 령감씌서 지금에는곤궁하시지만 압흐로힘복의길이열니시겟지오 아모리어세상이 돈만안는세상이지오만은잇지 선불선(善不善)의엇이업게습니가 조공도상심치마시기를바라옵고 그만저는가게습니다」
라고 동정하는듯이말하얏다
아!압지못게라 지금에영자아바지가 섭듯이삼만원이라는돈을출셈만아니라 지어엿빅만원이라는돈일지라도 괴한터로흘넘이업시갑겟노라 큰말을하얏스니 과연무엇을밋고 그와갓치큰말을하얏스면 지금에삼만원이라는돈은 어터로부터 나오는돈일는지?참으로의심된구롬만이러날셈이로다

開放欄 投稿歡迎

近代政治의 理想

申元澈(寄)

第二節 心理的原因

政治를 發生케한 心理的原因은 優先欲 支配欲 壓迫欲爭이 그 現著한 原因이니 是는 決코 普通人의 頭腦의 作用으로부터는 到底히 判辨하기 不可能한 事實이라 그러면 勿論 頭腦의 動作이 明晳하야 凡人에 及할 可望性이 無한 英雄豪傑間에 在하야 强大히 躍動된 바이니 英雄의 動靜에 依하야 各方面으로 政治的 社會의 建設을 企圖하엿슴은 爀爀한 事實이로다

第三節 政治의 目的

그러면 前陳한바 諸原因의 競合에 依하야 發生된 政治는 抑如何한 政治냐? 或은 政治는 强者權力을 行使하야써 弱者를 壓制 支配하는 方策에 不外할이라 論斷할수잇스되 決코 弱者는 永遠性을 가진 弱者가 안이며 强者는 永久性을 가진 强者가 됨을 不得하리니 그러면 弱者階級에서 普遍的 實力을 養成하야 强者卽支配階級을 凌駕할만한 能力을 具存함에 至한다하면 弱者는 顚倒的으로 支配階級에 自處함에 至함은 必定的 事實이 안인가? 萬若如斯한 立場으로 見解하면 人生乃至政治는 唯一한『力』에 依하야 解決됨을 得한다 함이 안인가? 果然일진대 如斯한 意味下에 잇는 政治는 强者對弱의 戰爭에 不過함이로다 그러면 現今社會의 政治가 各自의 能力又는 富力 强力의 社會的 勢現에 依하야 發生하는 現象이라 稱할것갓흐면 政治가『力』에 依하야 解決된다 함도 否認할 事實이 안이라 한다 雖然이나 現今政治는 公正觀念을 基礎로 한 秩序의 維持 人民生活의 安定 人民經濟力의 充實 敎育其他 文化的 施設等을 助長 奬勵 振興하야써 福利를 積極的으로 企圖함을 職務로 할 뿐 不是라 적어도 政治는 敎世를 目的으로 한 理想的 標榜을 包含하엿슬것이다

四章 政治의 運用

古來에 政治를 運用하는 方法이 一種의 理想이 有하니 即(一)哲人政治(二)民主政治가 是也라

第一節 哲人政治

哲人政治라 함은 智者又는 識者의 階級을 國家組織의 最上級에 置하야 換言하면 愚賢級附한 優越階級이 支配權을 掌握하야 善政을 行함이니 그러면 國家의 支配者는 唯獨 政治的 手腕이나 또는 手腕 如何에 依하야 그 政治家가 政治家된 資格을 是認함에 止함이 안이라 그 以上에 支配權을 掌握할 만한 政治家는 哲學者가 되지 안이치 못하리라 하는 政治이니 即是가 理想的 支配者이며 理想的 智者이니 一般國民은 그 哲學者의 指導와 支配下에 잇서서 비로소 幸福을 享受하며 理想的 道德的 生活을 營爲함을 爲한다 함이로다 從하야 一般國民은 其哲人 支配에 對하야는 協力으로 扶翼하게 함이니『푸랏톤』과『아리스토테레스』의 理想이 이것이라 哲人政治理想家『푸랏톤』은『理想的國家는 最優者가 他를 支配하는 國家로다』라고 力說하야 國家의 組織을 三階級으로 分하되 智識階級으로 하여금 立法者로 認定하야 最高級에 任하고 次에는 立法者卽哲者 賢者의 支配下에 活動하는 文人 武人階級을 置하고 最下級에는 農工 商人階級을 置함이 最適하다 主唱하엿스며『푸랏톤』의 弟子『아리스토테레스』는 國家의 形體를 君主政體 貴族政體 共和政體(民主政體)의 三種으로 區別하야 各々長短을 評論하야 曰「國家의 事情에 依하야서 特別히 一人이 卓擧的 條件의 才能이 豐富한 境遇에는 其國家의 政治는 君主政治로 될지며 又는 少數階級에 限하야 卓越的 經驗의 才質이 有한 時에는 貴族政治가 되지며 或은 一般全國民의 智識이나 見識이 普遍的으로 發達하야 能히 自治할 만한 能力을 一齊히 涵養한 境遇에는 其國家의 政治는 勿論 民主政治로 될것이라」力說하엿스나 그러나 君主政治나 貴族政治 又는 民主政治의 何者에도 固執主張치 아니하엿스나 結局은『最實階級全體가 政權을 掌握하는 政體가 最良한 政治라』하엿다 (未完)

新詩 『苦痛의 報酬』

開城 申元澈

아ㅣ나의
사랑하는 모ㅣ든 兄弟들아
兄弟들은 누구런지
偉大한者가 되고저 하는가?
그러면 나의 兄弟여!
兄弟들은!
모롬적이! 自己自身
그것을 犧牲하라!
그리하면 그 報酬로!
苦痛! 悲哀! 煩悶!
그것은 사라지리며
□ □ □
아ㅣ참으로
苦痛! 苦痛!
煩悶! 悲觀!
그것은 無言의 祈禱여라
아ㅣ그러면 兄弟들아!
煩悶을 悲痛을!
苦惱를 忍受하라!
悲觀에서……
煩悶에서! 苦痛에서!
淨光이 輝爛하야
모ㅣ든 兄弟를 써안으리니(未完)

殘月 (十一)

雲遊生 作

그러나 미자는 오늘날에 이르러 자기의 살아온 반성(半生)과 오늘날 처지가 도모지 사람이 할 바 안임을 알엇스며 정신(精神)이 서여 감사록 입시일각이나마 그런곳에 발 덤블기를 숣혀하게 되엿다 그리하야 그는 자기신세를 한석할 셔마다 항상 「아아 니가 그! 전에 세상이 엇더하고 인성이 무엇임을 아족 모르던 그 때에 엇지맘으로 그갓흔 길을 발벗스며 첨이든 후로는 그 쉽테업는 금전으로 막미암아 몸을 드리우고 정신을 셕이여 오늘날 자긔신세를 구렁창에 스사로 던져 잇도록 참혹히 되엿스며 하날과 셔서 쎄 용납지 못할 일도 상죄인이 되엿슴가」하며 못내 술퍼하는 경상을 볼 셔마다 나는 무한한 감동을 밧아스며 동정의 피가 소사 올나섯다 그리하야 나는 미자의 그음은 비록 엽의 더러윗다 할지라도 그의 령혼(靈魂)이 셔여 나왓스며 그 밝에 세상에 새롭버슨 것에 쏘다시 귀여윗섯다 그러면 그는 맛참니 지난 반성을 뭇엇시회키 하고 다시 새깟한 사람이 되려 하는구나 싱각하고 나는 다시 「그러 당신이 지난 세상의 죄악을 벗교시 사람이 되고저 하입닛가?」무럿다 그셔 그는 가는 목소리로 「네! 그럿습니다 이제로부터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야 일분이라도 사회를 위하야 힘쓰는 몸이 되야 지난 세상에 더러운 죄악을 조곰이라도 씻슬가 합니다」

이러한 문답을 밧군입도 잇서지만 그는 과연 지난 자긔가 거러온 길이 더러웟고 또한 자긔의 오늘날 사입이 역시 인모상 죄악이엿슴을 절절히 색다른 오늘이다 그리하여 그는 이제로부터 과거(過去)를 침비앗고 도라셔서 새로운 사람이 되야서 세상을 향하야 일하고저 하는 잇셔이로다

아아 사람이 본시 착하고 악함이 어디 잇스리오 타고날 적에 로결하던 어린의 덜여지라난 후 혹은 선하고 혹은 악하게 됨은 그 기르는 법을 밧은 그 부모의 교육도 교육이어니와 사물과 인정과 경우가 도서 그 아희를에게 선과 악과(善果惡果)를 릿게 하는 것이로다 그라 세상에 낫타나는 모!든 선악의 그림자는 그 엇던 처지에 잇서 그 서악의 탈을 쓰고 엇는 자의 낫타남이라 합에는 전혀 그 범인 자를 에워차ㄴ가 사회가 그르하야곰 그런 일을 힘하계 합이로다 그러면 오늘날 세인이 죄악々々(罪惡)하고 써들며 그 범힝자셩을 공격하고 마위하지만은 그것은 보는 표준(標準)을 그릇치고 공평을 결합이라 할지니 엇지 한갓 그 죄악을 범하는 자만 미워할 바이라 올라 미자가 그러한 길로 들어가 날 이런 곳에 이르럿슴도 그 부모와 세상과 금전 등 모든 것이 스리니은 것이오 결코 그의 탕심이 잇섯하고 구하여슴 것은 아니너 그가 오늘날부터라도 그 죄악의 탈을 벗고 터연한 본성(本性)을 낫하니는 그날부터는 또한 어질고 착한 사람이 될것이로다

나는 이럿케 싱각할 셔에 지금아지 니가 그를 「악마」「악마의 탈」이라 쳐하며 종악하던 것이 한업시 붓그럽고 죄송스러웟다 그셔 나는 미자를 두번 세번 도라보며 「악마의 탈을 쓰고 잇는 텬사(天使)라」 부르지지면서

「미자씨! 참으로 그러치 다면 오죄 감사하갯슴니가」

이럿케 말하엿다

○○○○

그 예 친되던 날 여러 동무로 더부러 그의 담담한 방안에셔 세상은 갓쓰림(浮世話)로 뢰종일 소견하다가 취가 누엿누엿 넘어갈 셰에 다른 동무들은 각각 집으로 도라가고 미자와 나 두사람이 쳘송넝에 올나왓섯다 그셔도 바로 지금 안즌 이자리엿섯다 솔나무 아러 한가한 잠이 깁흔 령감님을 보고 우스며서 벌건 서텬(西天) 하남을 바타보며 자연(自然)을 노러하며서 우리는 인싱문데(人生問題)로부터 토론(討論)을 시작하야 련애문데(戀愛問題) 사회문데(社會問題)를 가지고 크고 젹은 사상을 밧구이 보앗다 그셔야 나는 미자의 셰인 사상이 너자계(女子界)에셔는 보기 드믄 만치 초월(超越)함을 알엇스며 인싱문데(人生問題)에 이르려는 그의 주의와 정견(主義와定見)이 리초(基礎)가 공고(鞏固)하야 용이히 흔들지 못할 만큼 곳세입을 알엇다 과연 그는 십유여년 동안을 가진 고탁의 쓰고 운고초를 격그나 머지 그 우에 다시 업슬 자러의 셰여 난 령(靈)의 (土臺)를 닥은… 멈을 늘로터 가다만 녕남 성인(聖人)과 련인(哲人)의 가타 친착에서 빈호고 도론바 리론(理論)을 가지고서 한바가 도하 단겨운 면엇 단련(鍛鍊)과 경험(經驗)을 가지고 잇서니 엇더니 하는 외에 무츤 보편뎍 종괄뎍으로 연구함도 경험함도 업섯다 그런즉 나는 미자에게 대하야는 외송이엿다 아우우유(牛乳)를 이나 더 먹어야 될시터이다 혼자 싱각하엿다 그는 비록 오늘날 그런 구렁에 빠ᄒ업으론 사람이나 그러나 나에게는 선싱이다 이럿케 셩가하며 그의 열곡을 바타보왓다

各地報道

諸氏의 勸學熱

和順郡東面人士는 該地方에 敎育이 不及됨을 今年春以後 絶叫한 結果 同有志者 曺基鍊、曺基俊、呂奎洪 三氏外 諸氏의 發起로 十月三日부터 開學하얏는데 旣報와 如히 和順靑年會講習所 敎員으로 勤務하던 金東述氏의 敎育熱로 當地臨時在勤한 一般人士와 同面을 開拓發展하기 爲하야 熱心竭力한 結果 開學當初는 十人에 不過하얏는데 同敎員의 敎育熱誠과 敎授方法 親切無比함으로 生徒가 日加月增하야 方今 三十人이 增加되얏는데 敎室이 狹窄함과 其他 諸般經費上 關係와 各任員을 選定코자 하야 發起總會를 開催하야 維持方針을 協議하얏다더라(和順)

聯合運動會의 盛況

順天郡西面雲坪里居 金赫柱、鄭雲濬 兩氏의 多年熱心經營인 順興學堂에서는 學父兄諸氏의 同情으로 同面九上鶴谷、板橋、九萬里 四個學堂을 聯合하야 去二十三日午前九時부터 雲坪村前廣場에서 大運動會를 開催하얏는바 定刻前부터 雲集하는 觀客은 千餘名에 達하야 人山人海를 成하얏고 生徒數百名의 健兒는 龍飛虎躍의 壯快한 形勢로 二十八種의 競技는 空前의 大盛況을 成한 後 來賓競走와 지잇섯고 다음에 賞品授與式을 擧行한 後 下午四時頃에 無事散會하얏다더라(順天)

産業品評會計畫

江原道金化郡岐梧面昌道市에서는 柳秉烈、金相默、吳顯錫、朴文相 諸氏의 主催로 産業品評會를 十二月五日부터 同七日々지 三日間 擧行할 後로써 此期를 利用하야 白日場及脚戱도 開催할터이라는 터 場所及脚戱賞品은 左와 如하더라

一、品評會場所는 昌道牛市場內
二、白日場々所는 昌道公立普通學校內
三、脚戱場所는 昌道煙草倉庫構內

脚戱賞品

大人
一等 庚牛 一頭
二等 廣木 一疋
三等 白盤 一叭

小兒
一等 石油 一箱
二等 洋傘 一個
三等 洋木 一疋

趙婦人三度表彰式

潭陽郡貞面五禮里居 趙氏婦人은 自己 男便 金仁秀氏가 病으로 絶命時를 當하야 食刀로 二指를 斷하야 四指에 차끈 잇다 함은 本報에 旣爲報道하엿거니와 京城居 閔泳徽氏는 다시 同面長의게 聞한 바 趙氏는 天賦性이 慈父母의게 至誠至孝함으로 同面으로부터 二度의 表彰이 有하엿섯다는 說을 聞하고 그 孝烈에 感하야 褒頌孝烈이라 刻한 金指環 一個를 同面으로 依賴하야 面長外 各區長은 此를 傳贈키 爲하야 去二十六日에 表彰式을 擧行하엿다는데 隣近邑 男女의 輿論을 聞하건대 이 世上에는 孝烈을 表彰한 일이 全無하더니 道居한 閔子爵으로부터 趙婦人의 孝烈을 表彰한다 하고 觀覽者가 多數에 至하야 盛況을 呈하얏스며 同面長 金鍾植氏의 祝辭로 氏는 趙婦人의 上下衣 一件과 書記外 東江區長이 三圓五十錢을 寄贈하얏스며 同里區長外 二十人은 自發的으로 十錢 或二十錢을 聚合하야 食料品(大床)을 提供하엿다는데 趙婦人은 金指環을 바들 셰에 愧然한 顔色으로 閔子爵의게 感謝한 뜻을 感懇에 表함에 至한 바 婦人界에 一大感想을 與하엿다더라(潭陽)

振興會로 變更

論山旭町居 李憲永外 紳士諸氏의 發起로 里民 七十餘人을 集會하야 勸農組合을 設施하고 維持方針으로 錢穀을 隨力各出하야 基本財産을 積立次로 李憲永氏가 五十圓金을 補助한 바 合金 百五十餘圓과 租 十餘石을 爲最하야 同面長 方圭錫氏를 請邀하야 決議案을 通過한 즉 同面長 方圭錫氏가 時局의 發展進就事項을 說明한 結果 組合名稱을 振興會로 變更組織하고 任員을 選擧하얏는데 氏名은 如左하더라

會長 李憲永 副會長 金然 部長 白南儀 (論山)

監督書記會議

光州地方法院에서는 去二十四日附로써 管內各支廳監督書記及檢事分局主任書記會議를 開催하얏다는데 順天、木浦、濟州島、長興 各支廳書記 七名이 來會하얏슴으로 光州地方法院書記等을 倂合하고 同日午前十時부터 院長及檢事正의 訓示와 注意事項을 발치고 午後는 協議事項을 審議하고 翌二十五日은 協議事項에 對한 來會者의 意見을 發表케 하고 同日午後一時부터 諸般事務打合을 了한 後 散會하얏더라(全南)

天主靑年討論會

晉州天主敎靑年會에서는 去二十五日(土曜)下午八時부터 同敎會堂內에서 第十七回討論會를 開催하얏는데 臨時會長 李相石氏 司會와 開會辭로 討論이 始作케 된바 多數聽衆은 辯士의 熱烈한 雄辯에 깁히 감동하엿는데 처심히 深刻한 感想을 得한 後 李相石氏와 趙升來氏가 長時間 演說을 吐하야 滿場聽衆의게 多大한 感覺을 與하야 拍手喝采로서 閉會케 하얏는데 擧手可決로 可便이 勝利를 得케 되고 下午十一時頃에 無事散會하얏스며 討論問題와 辯士氏名은 左記와 如하더라

問題
國富增進에 外交乎 戰爭乎

可便辯士
金亮守、陳洪祚、朴在洪

否便辯士
金世亨、金基洪、金昌東

(晉州)

靈松間自働車郵便

靈光郵便局에서는 邑內靈一自働車部主任 朴正煥氏와 打合을 하고 松汀里靈光間郵便物遞送은 同自働車部에서 請負케 하고 去二十六日附로써 施行한다는데 遞送回數는 每日往復一回式으로 時間은 如左히 定하얏다더라

靈光發 午前十一時、松汀里着 午後一時十分、松汀里發 午後三時三十分、靈光着 午後五時四十五分 (全南)

鳴石面聯合運動會

晉州郡鳴石面에서는 數年來로 民族의 敎育熱이 白熱的 向上되는 同時에 同面內에 다 數三個의 私設講習所를 設置하고 우리 同胞子弟에게 熱烈히 新思想 新敎育을 敎授하야 前途發展이 大端有望하다는 터 今月十八日은 同面旺旨里濟賢講習所와 東一講習所와 廣德講習所의 三個所聯合으로 秋季大運動會를 同面事務所前廣場에서 開催하얏는바 午前八時부터 雲集한 觀衆은 實로 人山人海를 일우운 中에 同運動會々長의 開會辭로 競技를 順序에 依하야 始作하게 되얏는데 피가 끌코 살이 뛰노는 數百名 靑年의 活潑勇敢한 그 氣勢는 果然 보는 觀衆으로 하야금 歡喜의 拍手喝采를 마지 안이하야 天地를 震動케 하고 五十餘種의 競技를 一々히 다 맛친 後 運動會歌 三唱을 高唱하고 午後五時頃에 空前의 大盛況裡에서 無事散會하얏더라(晉州)

品評會場의 狀況

去月二十六日에 開催한 全州品評會는 初日부터 滿場의 盛況으로 每日一萬人以上의 入場者가 有한바 演藝館은 特別히 大盛況으로 八百名以上의 收容할 場內에 立錐할 餘地가 無하고 出品館及産業館은 該地方으로 이 來臨한 人의 耳目을 驚異하고 品評會에 備促하는 各種賣店도 景氣가 頗好하고 會場中央에 假設庭園은 全州에 居하는 日本人庭園의 所作인바 池中에 大噴水는 사ㅣ마ㅣ致勵鑑에 依하야 噴出함은 觀覽客의 精神을 爽快케 하고 全州酒造組合에서 酒樽 六七十個를 積하야 酒造塔을 作함도 可觀이엿더라(群山)

小作人相助會創立

朝鮮小作人相助會 金川支會 創立總會를 去月十六日午後二時에 同郡山外面에서 開催한 바 當地有志及小作人 二百餘人이 集會하얏는데 京城本部幹部 李昌煥氏가 雄辯을 吐하야 長時間 趣旨를 說明하매 一般聽衆이 拍手喝采하야 當席에서 支會를 組織하얏는데 任員氏名은 左와 如하며 同午後五時에 散會하얏다더라

會長 金達淵、部會長 李永夏、理事 鄭尙燠、黃錫顯、李春源、許仁得、沈相晩、李貴尙、監査 高明浩、權光洙、顧問 鄭萬鍾、鄭允心、評議員 許煐外五人、贊成員 鄭萬鳳外九人(金川)

三面長의 新任

黃海道黃州郡淸水面長 金昌獸、仁橋面長 徐炳學、靑龍面長 栗相福 三氏의 辭任한 代에 松林面書記 朴明鎬氏가 淸水面長으로 都峙面書記 李仁觀氏가 仁橋面長으로 靑龍面九老里 財産家 李永燮氏가 同面長으로 各히 被任되얏더라(兼二浦)

米價低下

群山公設市場에서는 米價下落을 順應하야 去二十四日부터 米小賣價格이 如左하더라

一等 白米 一升 貳十七錢
二等 同 同 二十一錢
三等 同 同 二十錢
一等 碎米 一升 十九錢
一等 立碎米 品切 (群山)

辭令塔

경성부령(京城府廳)에서는 지나간달삼십일이 납세긔한(納稅期限)인터 성적에 더하야 세무계원(稅務係員)이 협의회를 열고 각항세금 종수 방법을 협의하얏는데 ▲그협의한 적과를 들은즉 지금 금융이 고갈한 이셔에 긔일안에는 도져히 완납(完納)하기 어려운 일이라 하야 거위에는 부원(府員)의 총동원(總動員)을 힝한다지 ▲총동원을 힝하여 부수한 힘동을 할터인가 집집에 다녀 에 쫏이가셔 눈에 보이는 터로 동산을 압부로 집힝하야다가 경성부청 뒤뜰에 고물상덤을 설치하겟순 ▲리셩이야 쥭던지 륜리지 결을 하던지 상관할것업시 세금만 밧이되리면 데일 강산인가 경성부윤은 일등 분장을 타겟구면 빈싱의 북리되는 일로 협의하얏다는 말은 한번도 늣지 못하고 빈셩의 고혈만 긁어갈 일만 싱각하는 모양이다 아고 분하겟셔(종분요) ▲지나간이십사일에 원산(元山)에는 두자나 와 인눈이와 셔알리가 혹독히 치운 때 레일공업보통학교에는 란로를 설비치 안여 한 사람으로 어린학생들은 치위를 익의지 못하야 부모를 부르지즈면셔 닥계집으로 도라가는 비극을 일우엇다한다 ▲학교비에나 기라디세는 회마다음어 면셔 학교에 란로 한착를 설비치 못하는 것은 우리유에나 교장이하 일반직원은 어린학싱에게 이갓치 불친절합은 넘우도 덕한 일이다(원산부청)

社告

今般大田支局의 業務를 整理하기 爲하야 支局長 趙正煥 以下 局員全部를 解任하고 宋鍾用氏로 事務를 處理하오니 諸位照亮爲要

朝鮮日報社

今般全南支局長 河秉泰氏는 事情에 依하야 解任하고 位置及局員을 如左選定하얏사오니 僉位照亮爲要

支局位置 湖南線松汀里
支局名稱 全南支局
局員職氏名
支局長 朴鳳柱
總務兼記者 朴順琪

朝鮮日報社

謹告

本支局記者 朱丙權君은 事故로 因하야 辭任하고 本支局과는 一切關係가 無하오니 僉位는 照亮하시압

朝鮮日報滿洲支局

今般本支局의 業務를 擴張하기 爲하야 局員을 如左增選하얏사오니 諸位照亮하시압

總務兼記者 趙佑濟
外務員 朴星午

朝鮮日報晉州支局

本支局記者 李鎬謙、姜琪福 兩氏는 事情에 依하야 辭任하고 更히 支局의 位置及職員을 如左變更하얏사오니 僉位照亮하시압

支局의 位置 淸州市場町 一二四
局員氏名
總務兼記者 申堯均

朝鮮日報淸州支局

本支局位置는 左와 如히 變更함

元山府南山洞九番地
電話 五四五番

朝鮮日報元山支局

本支局業務擴張에 伴하야 販賣係를 設置하고 係員을 如左選定視務하오니 諸位는 照亮하시압

販賣係主任 薛學成
事務員 李烋圭

朝鮮日報新都支局

本支局業務를 一層擴張키 爲하야 左와 如히 局員을 選定하오니 僉位는 以此照亮하심을 仰要

記者 金東赫
記者 李錫萬
顧問 張寅煥

朝鮮日報洪城支局

本全南支局位置는 湖南線松汀里로 移轉하고 光州郡에는 全南支局出張所를 設置하야 業務를 擴張하오니 僉位照亮하시압

朝鮮日報全南支局

今般本支局變更됨을 因하야 十一月分新聞代金부터는 新任支局長 朴鳳柱게로 支拂하심을 望하나이다

朝鮮日報全南支局

本支局記者 徐忠源氏는 不得已한 事情에 依하야 解任하고 柳光烈氏를 記者兼集金員으로 選定하얏사오니 愛讀諸位는 照亮하시오

朝鮮日報禮山支局

急告

本支局日報代金及記事取扱하기 爲하야 總務兼記者 李鉉永과 記者兼集金員 柳光烈氏가 管內各地에 出張하오니 愛讀諸位는 照亮하시오

朝鮮日報禮山支局

祝朝鮮日報新幕支局

平山郡安城面店仁里 大成義塾 塾長 崔禹徽 塾監 申錫胤 學務委員長 崔道徽

瑞興郡禾岡面新幕里 禾岡面長 鄭錫祜

京義線新幕驛前 李鍾駿

京義線新幕驛前 貿易商 鄭斗燮

京義線新幕驛前 郭奉周

京義線新幕驛前 新幕沿 朴春鳳

瑞興邑內 金光善

京義線新幕驛前 貿易商 金基俊

京義線新幕驛前 綢緞布木商 王世浩

京義線新幕驛前 貿易商 金聲永

京義線新幕驛前 金永鎭

京義線新幕驛前 姜道常

京義線新幕驛前 文彩龍

京義線新幕驛前 楠瀨正直

京義線新幕驛前 釀造業 孫聖模

京義線新幕驛前 秦應七

京義線新幕驛前 穀物新炭貿易 朴春逢

京義線新幕驛前 海東旅館 朴允祚

京義線新幕驛前 永生醫院 朴文遠

京義線新幕驛前 貿易商 金烱均

京義線新幕驛前 布木商 金載德

京義線新幕驛前 雜貨商 閔泳勳

京義線新幕驛前 金光浩

京義線新幕驛前 薪炭商 朱永煥

京義線新幕驛前 新幕鑄物工廠 黃億龍

京義線新幕驛前 新興鑄物工場 崔基昌

京義線新幕驛前 片倉殖産株式會社新幕林業部內 金明浩

京義線新幕驛前 新春堂藥房 王世舜

京義線新幕驛前 金永寬

京義線新幕驛前 崔應善

京義線新幕驛前 甲 運送部 金顯應

京義線新幕驛前 新 運送部 朴昌根

京義線新幕驛前 燒酎製造業 李德仲

京義線新幕驛前 綢緞布木商 呂希齊

京義線新幕驛前 燒酎製造業 金炳鉉

京義線新幕驛前 明月館 主 陳貞順

京義線新幕驛前 山月館 主 金元卿

京義線新幕驛前 雜貨商 李鳳孫

京義線新幕驛前 印材商 李炳嘉

京義線新幕驛前 朴奇恒

京義線新幕驛前 興靜

京義線新幕驛前 雜貨商 金顯

오시요 오시요 어려운、환자는、무삼병이 진찰시간

京城旭町三丁目一番地 (百三十銀行南橫入)

井階カズ